

2022 / vol. 27

# 무등문화

無等文化



## COVER STORY



### 일월오봉도 / 박 오 순

개인전6회, 단체 및 회원전 150회  
문체부장관상수상, 대통령상 수상  
사)대한민국문화미술협회 광주지회장  
사)국제문화예술명인

### 題 號

「無等文化」는 李乙浩(전 국립광주박물관장) 博士 가 우리 고장의 母山이자 많은 역사 유적을 안고 있는 「무등」 자체가 평민, 일반, 보통의 뜻을 나타내고 있어 진정한 문화 운동의 철학·사상을 담고 있다고 하여 제호로 명명 하였다. 제호의 글씨는 故 法珪 金貞 姬 先生이 썼다. 현계 선생은 국전 초대작가, 광주시전·전남도전 초대 작가 및 심사위원을 역임하였다.

### 무드리의 어원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백제 때 광주를 ‘무진’, ‘무진주’라고도 했으나 ‘노지(奴只)’라고도 했다.” 고 되어있다. 학자들은 이 시대의 ‘노지’란 말이나 ‘무진’이란 글자는 습지를 뜻하는 ‘무돌(물들)’이었을 것으로 본다. 같은 발음의 토박이 땅이름으로 전해지는 동구 계림동과 북구 중흥동에 걸쳐 있던 경양방죽 들 이름을 ‘무드리’라고 했으며 무등산 북쪽 산기슭 마을인 충효동 일대는 ‘무들 밑들’이라고 했다.

- 광주 북구지 총론편

2022 / vol. 27

무등문화  
無等文化

# 문화비전 선언문

Culture  
Vision  
Declaration

문화는 삶을 담는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확보와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 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제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따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어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하나, 지방문화원은 문화경영을 전문적으로 적극 육성한다.

지방문화원 임직원 일동



북구문화원장  
彌奉 오 동 오

## 슬픔을 지우는 “문화 풍경”

‘나의 아픔이 세상의 수많은 아픔의 한 조각임을 깨닫고  
나의 기쁨이 누군가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줍니다.’

오래 전 고 신영복 교수의 ‘처음처럼’에서 읽었던 「슬픔의 위치」라는 글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때 문화적 풍경이 필요하다 느끼셨나요? 모든 문화적 풍경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서 깊은 도시를 방문하거나 오래 된 옛길을 걸을 때 그곳의 ‘스트리트 퍼니처’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은 조각상이나 표시물 하나에도 훌륭한 서사를 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감동적인 문화 풍경을 마주하면 가슴에 기쁨이 넘치고 저절로 노래 한 소절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다시 누군가의 슬픔을 위로하고 기쁨으로 승화되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 집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진정한 삶의 목소리가 그립고 또한 겸허한 목소리가 그리운 시기입니다. 지난 한해 이태원 참사로 통칭되는 불행한 사고는 우리 사회를 큰 슬픔에 빠지게 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원인 규명이라는 칼날을 서로에게 들이밀며 거친 말로 아픈 이들의 가슴에 또 다른 상처를 안겼습니다. 대상에 대한 존중과 정성스러움이 빠진다면 그 어떤 사과의 말도 빛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푸성귀를 숨어내는 진정성이 더 큰 꽃을 피우게 합니다.



돌아보면 코로나 팬데믹에도 곳곳에서 가슴 뜨거운 사람들의 문화행사와 다양한 문화풍경으로 세상은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문화의 손- 전시회, 시낭송회, 인문학 강좌, 독서 토론회 등이 곳곳에서 여러분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리두기와 격리 등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는 시간의 고귀함을 깨달았고 이웃들을 배려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태원으로 상징되는 이국 문화 풍경이 넘치는 거리에서 우리의 아들 딸 그리고 이웃의 젊은이들이 구조의 손길을 기다리다 꽃잎 날리듯 지워졌습니다. 이제 그 슬픔을 다독이는 것은 사라져간 젊은이들의 부모님 아내 친구들만의 몫이 아닌 우리들이 함께 나누어야 할 사회적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처지를 바꾸어 생각하고 기억해 줄 수 있는 문화 풍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년과 소녀가 자라 어른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문화가 없다면 미래의 세상은 이내 '블랙 아웃'의 어둠속으로 빨려들게 되겠지요. 모든 성장의 서사에는 문화적 비밀이 담겨있습니다. 지난해의 불행을 돌아보며 우리에게 진정 필요한 문화풍경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새해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 인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문 인 입니다.

2022년도 향토문화소식지 <무등문화 제2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문화적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 오신 오동오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자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995년 개원한 북구문화원은 우리 지역의 향토자료 수집과 조사를 통해 우리지역 향토문화의 가치와 매력을 보존하는 데 앞장서 왔으며, 다양한 사회교육 프로그램과 주민참여 문화행사를 운영하며 지역 대표 사회교육기관으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춰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토속말 보존을 위한 <전라도 사투리 말하기 대회>, 청소년의 창작활동을 위한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문화학교 운영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문화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우리지역 역사인물과 북구의 지명 유래 조사를 통해 우리지역의 역사와 향토문화를 보존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북구문화원이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사항을 담아『무등문화 제27호』를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발간한『무등문화 제27호』는 우리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에 관한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에게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애착과 문화행사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북구문화원이 우리 지역의 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문화발전의 핵심기관으로 더욱 발전하시기를 바라며 다시 한 번 『무등문화 제27호』 발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의장  
김형수

반갑습니다. 북구의회 의장 김형수입니다.

우리지역의 대표 문화소식지인 <무등문화 제27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적인 경제불황과 불안한 국제정세 속에도 문화적 사명감으로 우리지역의 문화발전에 힘써오신 북구문화원 오동오 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인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북구는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많은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광주문화를 선도하고 호남문화의 기틀이 되고 있습니다.

북구문화원이 우리지역의 향토자료를 수집하고 보존, 발전 시킴은 물론 다양한 창작활동 지원과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문화활동 전반적인 부분에서 활동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발간되는 <무등문화 제27호>도 문화예술인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활동에의 참여를 높여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문화 정보를 꾸준히 접할 수 있도록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며, 우리 북구의회도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CONTENTS

**vol. 27** 2022년

Gjbukgu Cultural Center

**04**

발간사 / 북구문화원장  
축사 / 북구청장, 북구의회 의장

**09**

테마가 있는 문화풍경(화보) "2022년 북구문화원 행사"

**18**

**특집 I** 문화, 플랫폼의 가치  
- 각화제와 금봉미술관-호수를 건너가 시를 만나다. / 김효비아  
- '금지된 정원 DMZ, 해우소'를 거닐어 볼까요? / 오소후

**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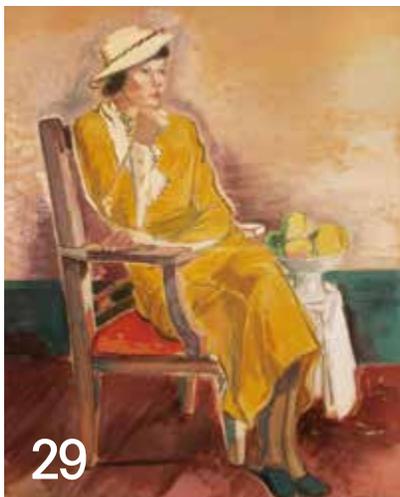
**특집 II** 광주시립미술관 둘러보기  
-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 김명지

**34**

**인터뷰** 명사초대석  
- "전통문화예술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사랑하자"  
(사)임방울국악진흥회 김중채 이사장 / 김정희

**41**

**문화, 지금 어디서**  
- 함평천지 '호남가비' 앞에서 / 탁인석  
- 환벽당의 옛 모습이 복원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 전고필  
- 가야금에 대하여 / 구경화



29



15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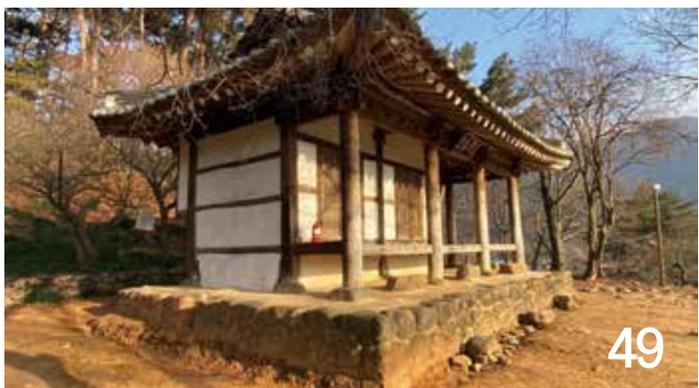
**북구문화사료**  
- 광주에서 발견되는 조탑(造塔) 신앙의 흔적 / 김학희  
- 광주의 옛 면명(面名)-경양면(景陽面)과 경양(景陽)방축 / 조강봉  
- 오륜 / 김중환

**77**

**무드리 문예마당** 북구문화원 회원 초대석  
- 방언대회 대상 수상작-어매, 아버지 맘태사랑 이야기 / 김인자  
- 한시-정득채 외 25명  
- 수필-신안군 관광 명소인 반월도 박지도를 문화탐방으로 다녀와서 / 고창욱  
- 왕비천 이야기 / 위무량  
- 환경호르몬 / 배병수  
- 풍영정 / 오충자

**105**

**북구문화원 프로그램 입상작**  
- "제28회 무드리 그리기 글쓰기 공모전" 입상자 작품



49



## 2022년 북구문화원 행사

### 〈광주문화원의 날 기념 페스티벌〉에서 “광주북구문화원”이 우수지방문화원에 선정

- 2007년도 전국 지방문화원의 문화비전 선언을 통해 제정된「문화원의 날」의 공고한 의지를 되살려 광주 5개 문화원의 역량 결집 기회를 제공하고, 광주 5개 문화원의 결속력 강화 및 지역문화 중심 역할로의 자부심 고취를 통한 광주지역 문화발전 기여.
- 일 시 :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13:00~
- 장 소 : 광주광역시 남구문화예술회관 공연장
- 내 용 : 우수 지방문화원 (광주광역시장 표창패) 광주북구문화원 선정  
지방문화원 유공 임직원 (광주광역시문화원연합회장 표창패) 고경희 이사 선정



## 한국문화원연합회 <2022년 지방문화원 통합자료관리시스템> 최다 자료 입력 기관 선정에서 “우수상” 수상



지방문화원의 수집·소장자료 디지털 보존관리 환경조성을 위하여 2021년 구축된 통합자료관리시스템에 2022년 북구문화원이 최다 자료 입력 기관에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았다.

## 북구문화원 판소리 강사 이은하, <광주 북구민의 날 기념식>에서 “제15회 구민의 상” 문화예술체육 부분 수상

- 일 시 : 2022년 9월 26일 10:00~
- 장 소 : 북구문화센터
- 내 용 : “제15회 구민의 상” 문화예술체육부분 수상



## 북구문화원 민화 강사 박오순, “(사)국제문화예술 민화 명인”에 선정

- 일 시 : 2022년 4월 11일 ~ 15일
- 장 소 : 부산시민공원 내 사랑채 전시관
- 내 용 : 국제종합예술진흥회 창립 제33주년을 맞아 공로상과 함께 국제명인예술 민화 명인에 선정

## 제27기 문화학교 및 제22기 사회교육강좌



-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이웃이 서로 함께하고 문화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도시화에 따른 소통단절 해소와 생활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 기 간 : 2022년 3월~12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강당, 평생학습관 2층 공연장
- 대 상 : 일반인
- 강 작 : 풍수지리, 고전한문, 판소리 · 민요교실, 고전무용, 민화, 사진찍기, 하모니카(초,중급), 생활영어(초,중급), 노래교실 등 11과목
- 강의일정: 과목당 주1~2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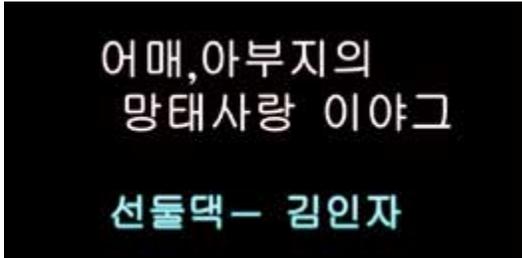
##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통합브로셔 제작

- 북구 중외공원 문화예술벨트 내 문화시설프로그램 홍보를 위한 통합 브로셔 제작
- 기 간 : 2022년 3월~5월
- 대 상 : 국립광주박물관, 비엔날레전시관, 시립민속박물관,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 내 용 : 중외공원 일대 문화시설 위치 및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문화예술지도 제작
- 발간부수 : 1,000부



## 제2회 전라도 사투리(방언) 말하기 대회

- 전라도 고유의 토속말을 보존하고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함.
- 접수기간 : 2022년 4월~6월. 동영상 촬영 후 온라인 접수 및 심사(원고제출)
- 참여 팀 : 우리 지역민 10팀
- 사업내용 : 경연시간 3~4분, 전라도 사투리 만담, 시낭송, 코미디, 콩트 등. 차후 당선자 원고 취합하여 책자 발간 및 영상활용
- 심사결과 : 김인자(대상) 외 9팀 수상



## 제28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 청소년들의 생각을 그림 및 글을 통해 담아보게 함으로써 함으로써 느낌을 바르게 표현하고 이해함은 물론, 예술을 통한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건전 여가선용과 바람직한 취미활동 장려.
- 기 간 : 2022년 5월~7월
- 부 문 : ■ 그리기-서양화, 수채화, 한국화, ■ 글쓰기-시, 산문
- 참가대상 : 초·중·고교(초등부, 중고등부로 나누어 진행), 미취학 어린이
- 내 용 :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 참여인원 : 577명 참여
- 심사결과 : 그리기 대상 이다윤(한울초 6-4), 글쓰기 대상 신서연(동신여중3-3) 외 33명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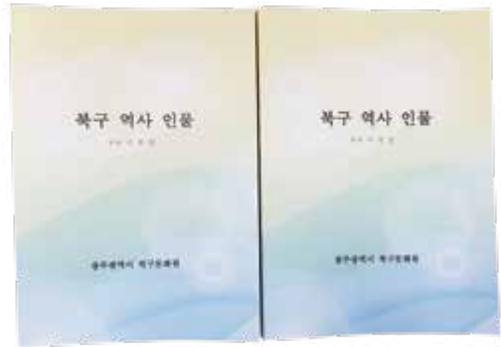
## 자문위원회 구성 운영-지역문화시설 네트워크 구축

- 북구문화원 활성화와 문화진흥사업의 핵심기관 역할 수행을 위한 자문 및 의견 수렴이 가능한 협의체 구축
- 기 간: 2022년 11월~12월
- 장 소: 북구문화원
- 자문위원: 문화계 전문가 5명
- 추진내용: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정보공유 및 소통창구 구축



## 우리지역 역사인물 찾기

- 광주 북구를 빛낸 역사인물들을 문헌자료,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자료 수집 후 조사. 근현대사 인물 및 잊혀진 인물들의 업적을 조사하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총절, 효행, 재학 외) 후 책자로 발간하여 후세에 교육자료 및 역사 자료로 활용.
- 조사지역: 광주 북구 지역 인물
- 조사기간: 2021년 3월~12월
- 조사방법: 전문가의 자문 및 문화재 자료, 문헌자료를 취합하고 조사하여 자료로 발간



## 광주 북구의 지명 유래 재조사

- 기존의 동명(洞名), 마을명(村名), 산명, 하천명 등 다양한 지명의 유래를 재조사하고 또 전국에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지명을 찾아 그 유래를 참고하면서 이들 지명이 어떤 원형에서 지금의 지명으로 정착했는지를 국어학의 제반 이론과 음운변동현상을 살펴 그 정확한 유래 및 어원을 밝히기 위함.
- 기 간: 2022년 5월 ~ 2022년 12월
- 장 소: 광주북구지역 28개 행정동
- 사업내용:
  - 관내 동명 및 마을명, 산명, 하천명 등 다양한 지명의 유래를 재조사 한다.
  - 해당 지명이 어떠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에서 불린 지명인지 그 연유를 탐구한다.
  - 전국에 동일한 이름의 지명의 유래를 찾아 해당 지명과 비교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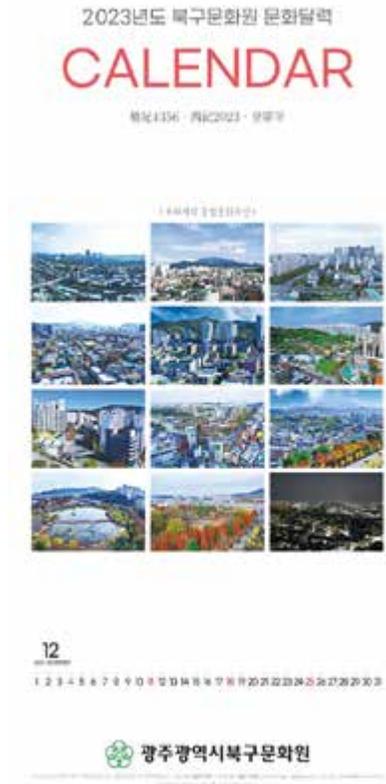


## 2023년 복구문화원 문화달력“동별문화유산” 제작

- 북구지역 동별 문화유산을 사진과 유래를 넣어 달력을 제작, 배포함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동의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배경을 알고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작, 배포.
- 기 간 : 2022년 10월~12월
- 내 용 : 북구 지역 28개 행정동 중 선별하여 사진촬영 후 복구문화원 발간「무드리향토사료집Ⅲ」의 동별 유래 자료를 추가하여 2023년도 문화달력 제작

## 무등문화 제27호 발간

- 본 원에서 실시된 각종사업, 문화예술활동 및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작품을 기고하고 우리지역의 문화행사를 책으로 엮은 향토문화소식지 발간
- 기 간 : 2022년 3월~12월
- 장 소 : 복구문화원 무등문화 편집실
- 내 용 : 문화원 사업 홍보 및 북구지역의 소식지
- 배 포 : 전국문화원, 전국문화원연합회, 유관기관, 도서관, 문화가족



## 노인일자리 사업“문화재 보호와 환경정화 활동”(공익형)

- 노인사회활동지원(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으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어르신들에게 맞춤형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소득창출 및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
- 기 간 : 2022년 2월~12월
- 장 소 : 환벽당 및 그 주변 문화재, 풍암정과 그 주변 및 원효계곡 하류 일대
- 참여대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30명
- 활동내용 : 문화재 주변 환경정화 및 훼손방지



## 노인일자리 사업 “실버예술공연단지원사업” (공익형)

- 음악에 재능 있는 어르신들로 공연팀을 조직하여 문화소외계층 및 거동이 불편한 이웃에 방문하여 교육, 공연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소득창출에도 도움.
- 기 간 : 2022년 2월~12월
- 장 소 : 북구 관내 · 외 사회복지시설 및 경로당
- 대 상 :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20명 (가요, 민요, 악기, 무용등 공연이 가능한자)
- 내 용 : 흘러간 대중가요, 판소리, 민요, 우리 춤, 악기, 전통무용 등 자신의 재능과 지식을 소외된 노년층에게 제공



##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얼~쭈 우리가락 좋을씨구~”

- 6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문화교육프로그램(민요, 무용, 가야금)을 꾸준한 반복학습과 심화교육을 통해 실시함으로써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함은 물론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과 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 마련
- 기 간 : 2022년 4월~11월
- 장 소 : 북구문화원, 일심한마음예술원 외
- 대 상 : 60세 이상 어르신 25명
- 활동방법 : 민요, 무용, 가야금 등 팀을 이뤄 공연 교육



## 지방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 “한복입고 나만의 규방공예 만들기”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는 날로 지방문화원과 함께하는 문화가 있는 날에 선정. 어린이, 가족과 함께 한복의 이론수업과 전통한복 9종을 체험하고 함께 규방공예 소품을 만들어 봄으로써 가족, 친구와의 유대관계는 물론 문화가 있는 날 활성화에 기여.
- 기 간 : 2022년 6월 29일, 7월 27일, 8월 30일, 9월 28일
- 장 소 : 북구지역 아동센터, 복구문화원 프로그램실
- 대 상 : 어린이, 가족, 어르신



## 2021년~2022년 지역문화인력(연속)지원사업 및 프로젝트 기획·운영

- (재)지역문화진흥원에서 공모 시행한 지역문화인력사업으로 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인력 발굴 및 문화인력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2021년에 이어 2022년도 연속으로 실시. 지역문화인력의 역량개발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기획, 운영사업으로는 참여자들이 목공예 제품을 함께 만들어 기부하는 “나무로 그리는 쉼표”를 운영.
- 기 간 : 2022년 1월~12월
- 장 소 : 복구문화원 프로그램실, 오즈하우스 공방
- 대 상 : 지역문화인력 1명, 지역주민 8명
- 내 용 : 지역문화인력이 문화매개체가 되어 프로젝트 사업을 진행. 목공예에 관심있는 주민들을 모집 후 이론수업, 개인 기초작업부터 공동 작업으로 작품이 완성되는 과정을 함께 참여하고 완성품(기차모양 나무 벤치)을 꿈나무사회복지관에 기부함.





## 특집 I, II

### 특집 I 문화, 플랫폼의 가치

- 각화제와 금봉미술관 - 호수를 건너가 시를 만나다 \_ 김호비아
- '금지된 정원 DMZ, 해우소'를 거닐어 볼까요? \_ 오소후

### 특집 II 광주시립미술관 둘러보기

-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_ 김명지

각화제와 금봉미술관  
호수를 걷다가 시를 만나다.

—  
시인 \_ 김효비아

요즘 선뜻 TV 틀기가 겁이 날 정도로 칼바람을 맞으며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화물 노동자들의 집회 광경을 보는 일은 고통스럽기까지 하다.

마침 조선대 신형철 (문학평론가)교수의 <슬픔을 공부하는 공부>를 읽고 있으면서 나는 타인과 타인 사이에 어정쩡한 경계인으로 뒷짐을 지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자신과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던 참이었다.



시인\_김효비아

10여년전 사회복지사로서 타인의 고통과 동행했던 기억을 헤집으면서 사회적인 현상보다 개인적인 슬픔에 더욱 함몰하는 퇴행의 시간들도 반추해보았다.

그러나 얼마 전 제목부터 강렬하게 끌어당긴 박형준 시인의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가 속으로 계속 맴돌고 있었는데 '사과나무의 꼭대기, 생각날 때마다 울었다.' 라는 문장이었다.

언제부터 였는 지, 내 눈물샘은 고장이 났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이미 문학 속에서 난 이방인이 되고 있음도 실토했다.

그래서였을까 초조한 발걸음으로 바깥세상으로 일탈을 감행했다.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의 이질적인 방식 때문에 때로 먼 타인처럼 느껴지는 남편에게 데이트를 제안했다.

우린 광주에 30년째 살면서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문화동쪽으로 향했다.

우선 인터넷으로 기초 자료를 검색했더니 우물 안 개구리가 따로 없구나 싶어 얼굴이 화끈거릴 정도로 문화동은 도시 재생사업으로 탈바꿈하고 진화를 거듭하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 사업으로써 성공사례의 후일담이 쏟아졌다.

### 우선 정리를 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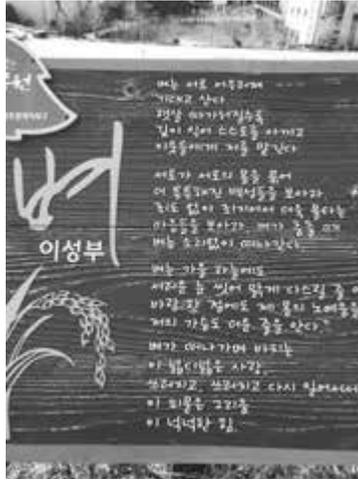
광주광역시 북구 문화동 주민들이 일군 '시화(詩畵)문화마을'은 도시형 마을 1번지로 꼽힌다. 아름다운 시화(詩畵)와 문화 향기가 넘치는 동네로 바꾸자는 소박한 뜻에서 시작한 프로젝트는 작은 씨앗'은 10여년 만에 다목적전시관이 포함된 200억원대의 '문화동 시화문화마을 조성' 사업으로 발전했다. 현재형으로 계속 진행되면서 무등산 자락 정도의 명소가 됐다.

특히, 시화마을의 사업은 2000년 광주시 북구가 26개 동네에 똑같은 사업비를 지원한 '주민과 함께하는 '쌈지공원' 이었다. 집집마다 애송시를 붙이고, 담장을 도색했다. 문패 만들기, 손바닥 공원 꽃가꾸기, 담장 장식과 같은 작은 일에도 '철학'을 입혔다.

업체에 의뢰한 게 아니라 주민들이 손수 제작해 애착을 갖게 했다.

이재길 시화문화마을연구소장(45·조각가·광주시 도시마케팅 연구위원)은 '시화 문화마을' 좋은 마을 만들기 전국 1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발췌 요약)





필자는 얼마 전에 자코메티전에서 보았던 <걷는 사람> 작품을 매개로 얘기하면서 평소 아주 가까운 거리도 자동차 이동이 일상화된 나는 모처럼 미술관 전시회 쪽으로 걸어 가보자고 남편의 손을 잡아끌었다

요즘 문화센터 수채화반을 다니고 있는 터라 군말 없이 따라주었다  
부창부수의 모델기분으로 다정하게 약 반시간을 걸었다

금봉미술관에서는 우연스럽게도 필자가 지도하는 수업에서 시를 공부했던 회원의 한국화반 동아리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다.

우리 그분의 작품 앞에서 인증샷을 찍어 즉석에서 날려 보냈다.

미술관에서는 지역민들을 위한 교양 프로그램이 있어서 활발한 학습공간이 되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의 외출에 가장 궁금증이 발동했던 유명 작가들의 시판구경에 나섰다. 각화제 호수는 아담한 산자락이 데칼코마니로 비추어진 한 점의 풍경화로 펼쳐져 있고 어머니의 치마폭처럼 안온하고 평화로웠다

젊은 부모를 따라 온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수면 위로 파문을 일으키고 오리떼가 놀라서 달아나는 장면은 잊고 있었던 소박한 행복을 충분히 연출했다.

호수 주위를 편안하게 잘 가꾸어진 데

크길을 걸으면서 소리 내어 시들을 낭독했다 짜한 기온으로 내 입김이 뿌연 꼬리를 남기며 허공으로 날아가는 실루엣은 오히려 설렘과 흥분을 자아내며 지나가는 시민들도 눈웃음으로 공감해 주었다. 주차장에는 전원범 교수의 별, 이어서 문병란의 희망가, 조태일의 풀꽃은 꺾이지 않는다, 이성부의 벼, 이수행의 그대만 아픈 것이 아니다, 김남주의 옛 마을을 지나며, 김준태의 길, 황지우의 길, 김종의 새벽 무각사, 마지막으로 김정희의 '가을이다' 까지 ..

줍 많은 햇살이  
슬한 나뭇잎을 깊은 골짜기에 가두었다.

바람의 길을 걸어간  
어느 목공의 슬픈 헌화가를 따라  
너무나 붉은 그대의 황홀  
그 이야기를 밟으며 벼랑길을 오른다.

긴 기다림에 눈먼 마애불의 어리석은 사랑이 산사를 스쳐 간 후  
적막만 한 채 남았다.

사람들, 그리움의 모서리에서  
자꾸 넘어 진다.

가을이다.

한껏 시낭송가의 감성으로 낭송을 하는 사이에 산책 나온 주민들도 필자 곁으로 다가와서 나눠 함께 시를 읊조리면서 묘한 동질감으로 희열을 나누기도 했다.

마치 여행을 다녀온 듯 심신에 생기가 돋고 가슴이 벅차올랐다.  
시나브로 한기가 드는 어깨 위로 어스름이 내려앉고 있었으나  
문득 문학이라는 영양제 주사를 맞은 느낌이 들었기에 오히려 심장은 뜨겁게 달구어지고 있었다. 비로소 내가 인간성을 회복한 듯 스스로 뿌듯했다.

역시 문학은 인간다움을 되찾게 해주는 묘약이고 보물지도 같은 것이다.  
갓가지 현실적인 어두운 사건사고가 대화의 공통분모가 되어가는 연말연시에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지,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시선으로 무릇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근본적인 물음에 스스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 때가 아닐까 싶다.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샘길 7 '광주호호수생태원' '명품마을 평촌'

# '금지된 정원 DMZ, 해우소'를 거닐어 볼까요?

시인 \_ 오 소 후

그곳에 가려면 무등산 허리를 감아 돌아  
가도 좋다. 무등산 천지인 봉우리를 보  
며 담양군 고서면에서 가사문학면으로  
진입해도 좋다, 얼마나 아름답고 그윽했  
으면 교과서에 실린 가사(歌辭)가 창작되  
었을까? 또 계산풍류의 흥이 솟았을까?

그렇게 풍류가 흐르는 공간에 광주호수가 2006년 3월 개장하였다. 광주시민들의 정서 안정과 체력증진 뿐만 아니라 광주를 방문하는 외지인들도 아주 좋아하는 공간이 되었다.

특별히 금지된 정원 DMZ에 관해서 말하고자 한다. 이 지구상에 금지된 정원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만은 아닐 것이다. 체스노빌의 어느 구역도 한 때는 자유롭지 못했다. 그러나 비무장 지대는 동족상잔의 비극이 형상화 되어있다.



버려진 철모 그리고 풀에 뒤덮인 녹슨 철길 그래서 하늘을 올려다보면 저절로 눈에 들어오는 감시초소. 그러나 반전이 숨어있다. 덩굴이 휘감아 올라가는 돌담 골목길 끝에 한옥 기와지붕을 하고 정결한 여인처럼 서있는 해우소. 마음의 근심을 털어버린다는 해우소는 화장실의 다른 말이다.

이 동양의 오래 발효된 공간들이 정원이 된 일은 정말 놀라운 풍경이다. 2011년 '해우소 가는 길 근심을 털어 버리는 곳, 마음을 비우는 곳' 금메달과 최고상을 받았다. 2012년 영국첼시플라워쇼 195년 지속된 권위있는 행사에 찰스왕자 다음으로 금메달을 수상 한 한지해교수 정원 디자이너 환경미술가, 이 이름처럼 맑고 청아한 직업명이 있을까?



황지해 교수는 또 도전했다. 그 다음 가든디자이너 대회에서는 지리산을 모티브로 ‘치유의 땅: 한국의 산’을 구상했다. 2023년 첼시 플라워쇼에 출전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원 디자이너와 경쟁한다.

황지해교수는 말했다. 티브이를 통해서 고향의 산이나 강 그리고 야생화

등에서 배우고 어머니의 화단에서 배웠다고 전한다. 정말 세상에는 아름다운 숲 원시림도 많지만 황지해교수의 가든처럼 낮익은 정원은 동족의 정서일 것이다. K 가드너는 나의 자랑이다.

해지는 방향이 한 점 풍경화로 보이는 호수 쉼터에 앉아 본다. 생태공원 개장 이후 어느새 숲은 우거지고 잘 정돈된 나무데크길을 거니노라면 나의 60여년전 외국영화를 볼 때 부러워하던 광경이 떠오른다. 키 큰 나무 숲 사이로 호수 수면까지 늘어진 물푸레나무가지를 보면서 스스로 삶의 질이 윤기가 돈다.

호수생태공원 주변에는 왕버들군과 충효마을 충장공 김덕령 집안의 충, 효, 열 정려각 그리고 환벽당을 지나 취가정을 마음에 담아본다. 더 올라가면 평촌마을의 분청사기 도예공방, 무돌길 쉼터, 리움스튜디오와 담안예술마을, 반디평촌마을을 지나 등성이를 지나면 ‘아, 나도 여기 살고 싶다’ 이런 심정이 되는 전국 열 번째 명품마을에는 ‘평촌누리길’이 조성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평촌명품마을영농조합」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체험을 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모임이 반디마을을 방문하고 각종체험에 참여한다. 세계적인 관광지로서 경이로운 문화를 안겨준다.

한편 '마을이 세상을 구한다'는 말처럼 작은 마을에서 느끼는 위로와 힐링 그리고 공동체의 크고 작은 기쁨 슬픔을 나누고 체험했을 때 느껴지는 충족감이 바로 행복지수가 높아지는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다. 천천히 걷는다. 풍암천 물소리가 들리고 무등산 의병길 표지판이 앞선다. 삼괴정을 지나면 저절로 돌이켜지는 부모형제 그리고 나의 생명의 씨앗의 근원을 떠올린다. 광주광역시 북구 평촌누리길을 걸으며 밝은 생각의 실마리를 짝 붙들어맨다.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

광주시립미술관 김 명 지 학예연구사



이건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이 지난 10월 4일부터 11월 27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본관(3-6전시실)에서 개최되었다. 이 전시는 이건희 컬렉션 지역 순회 첫 번째 전시이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지난해 삼성그룹 고(故)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이 문화재와 미술품 2만 3,283점을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을 비롯하여 지역 미술관에 기증하였다.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족이 보여준 기증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이며, 나눔의 사회적 가치와 의미를 보여주는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기증이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은 미술품 1,488점을 기증 받았으며 국·내외 미술품이 망라되어 있고 희소가치가 높은 한국근대기 작품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그 의미와 가치가 높다.



구본웅

인물, 1940년대, 30.5×24cm,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오지호

설경, 1971, 46×54cm, 캔버스에 유채,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이견희 컬렉션.

이견희컬렉션 한국근현대미술 특별전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은 고 삼성 이견희 회장이 보여준 기증의 의미를 되새기고 한국근현대미술의 흐름을 조망하고자 마련한 전시이다. 지난 전시에서는 한국근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이상범, 이중섭, 박수근, 김환기, 유영국 등 45명의 작가의 작품이 선보였다.

한국의 근현대미술은 국권 침탈과 식민지 상황, 그리고 한국전쟁, 분단, 민주화 운동 등의 암담하고 처참한 역사 속에서 시대적 교감을 통해 변화 발전하였다.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은 서양화의 도입으로 변화된 한국 미술계의 상황을 시작으로 20세기 후반 미술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역사적 상황 속에서 변화된 한국 근현대미술의 맥락을 짚어보기 위해 한국 근현대미술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대가들의 작품을 중심으로 ‘계승과 수용’, ‘한국화의 변용, 혁신’, ‘변혁의 시대, 새로운 모색’, ‘추상미술과 다양성의 확장’으로 나눠 전시를 구성하였다.

20세기 초 서양화의 도입과 서양미술을 배우기 위해 일본으로의 유학이 점차 확대 되면서 한국 미술계는 많은 변화가 발생한다. ‘계승과 수용’ 섹션에서는 당시 변화된 미술계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작가의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서양화 도입 이후 전통 수묵화에서는 관념 산수의 맥을 지키고 계승하고자 하는 경향과 현실적 경관을 사실적으로 그리고자 하는 경향이 공존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서양화에서는 일본 유학을 통해 서양미술을 익힌 미술가들이 귀국 후 자신만의 독특한 양식을 구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 근대미술의 변화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작업을 한 작가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어서 그 의미가 크다. 특히 일상 주변의 풍경이나 인물, 정물을 소재로 안정감 있는 구도와 온화한 색조를 사용하여 작업한

도상봉(1902-1977), 전위미술 양식을 우리 화단에 확산시키고자 노력한 구본웅(1906-1952), 한국적 인상주의 미술의 정착에 선구적인 역할을 한 오지호(1905-1982), 불투명 수채기법을 활용해 자신만의 양식을 구축한 이인성(1912-1950)의 작품이 전시되어 많은 시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다.



이인성

노란 옷을 입은 여인상, 1934, 73.5x58.5cm, 종이에 채색, 대구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천경자

만선, 1971, 121x105cm, 종이에 채색(석채, 분채, 아교), 전남도립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한국화의 변용, 혁신’ 섹션에서는 한국화의 현대적 변용을 보여준 작품들이 전시되었다. 새로운 조형감각을 살려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독창적인 작품 세계를 구축한 김기창(1914-2001), 단순화한 추상 이미지를 통해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는 작품을 한 이응노(1904-1989), 불교(佛敎)와 한국의 무속(巫俗) 등을 이용해 한국적인 미감을 작품 속에서 구현한 박생광(1904-1985), 자전적인 주제와 화려한 채색기법으로 독자적인 양식을 확립하였고 전통적인 한국화의 범주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천

경자(1924-2015)의 작품 그리고 구상과 추상, 수묵과 채색 그리고 전통미술과 현대미술의 조형적 언어를 넘나드는 작업을 한 이종상(1938-)의 작품이 전시되어 한국화의 다양한 변화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응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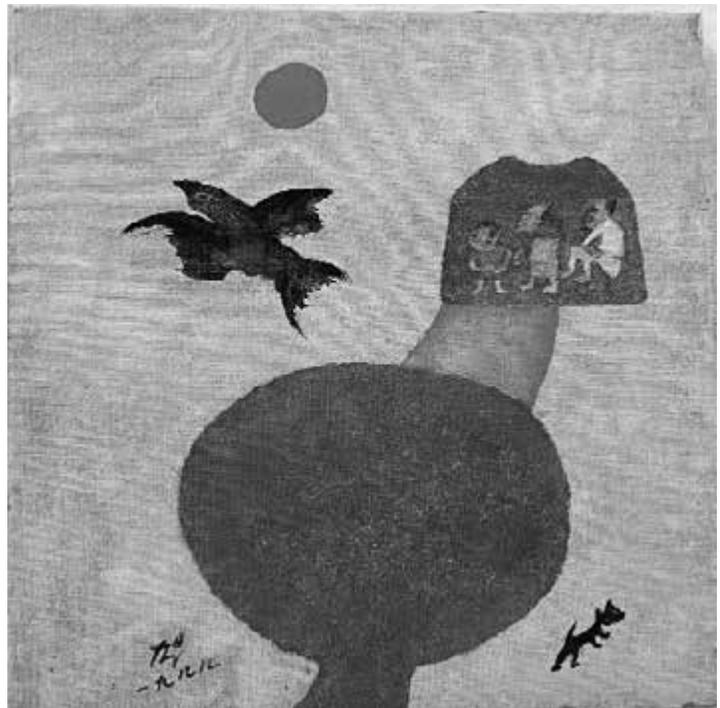
인간, 1986, 137×70cm, 종이에 먹,  
광주시립미술관 소장, 이견희 컬렉션.



박수근

세 여인, 1961, 21×46.7cm, 패널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변혁의 시대, 새로운 모색’ 섹션에서는 1940-50년대 식민지 종결과 한국전쟁으로 질곡진 역사를 관통하면서 시대의 아픔과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자 하는 염원을 담아낸 작품과 구상미술에서 새로운 시도를 한 작품이 전시되었다. 전쟁 이후 질박한 삶을 살아온 우리 민족의 모습을 두꺼운 마티에르와 회갈색 톤의 단색조 화면을 통해 보여준 박수근(1914-1965), 일상적이며 친근한 소재와 아이 같은 동심의 세계를 절제



장옥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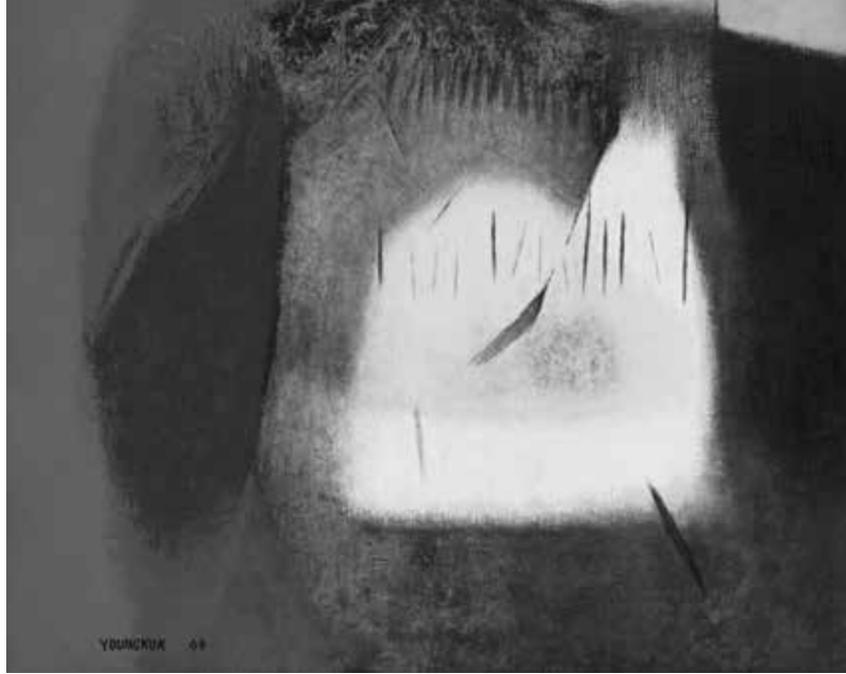
새와 가족, 1988, 40×40cm,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된 간결한 선으로 표현한 장욱진(1917-1990), 자전적 요소를 가미한 내면의 세계를 심화한 이중섭(1916-1956)의 작품과 사실적 묘사를 통해 민중 미술을 주제로 작업을 한 신학철(1943-), 제주의 아픈 역사적 진실을 모티브로 작업을 한 제주의 화가, 4.3 항쟁의 화가라고 불리는 강요배(1952-), 강렬한 색채와 굵은 윤곽선을 이용해 실향민으로 겪었던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담은 윤중식(1913-2012), 선과 강렬한 색채로 산의 사계를 작품에 담으면서 산의 화가라 불리는 박고석(1917-2002) 그리고 빛의 대비와 색조의 변조를 보여준 색채 화가 임직순(1921~1996) 등 자신만의 구상미술의 세계를 구축한 작가의 작품을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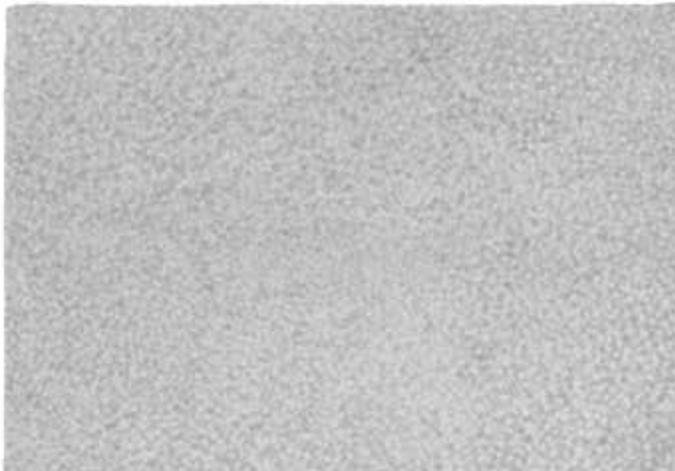
신학철  
한국근대사  
(韓國近代史)-종합,  
1982-83,  
390×130cm,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추상미술과 다양성의 확장’  
 섹션에서는 한국 추상미술의 선  
 구자인 김환기(1913-1974)와  
 유명국(1916-2002)을 필두로  
 창작미술협회의 류경채(1920-  
 1995), 현대미술가협회에서 활  
 동한 하인두(1930-1989) 등의  
 작가 작품을 통해 한국 추상미  
 술의 흐름을 조망할 수 있었으며



유명국

작품, 1965, 129.5×161cm, 캔버스에 유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곽인식

무제, 1978, 181.5×258.5cm, 캔버스, 종이에 수채,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이건희 컬렉션

사물이 갖는 물성과 근원적인 형  
 상에 대해 천착한 곽인식(1919-  
 1988), 전통 한지를 이용하여 오  
 브제 작업을 한 전광영(1944-) 등  
 현대미술의 다양한 변용을 보여주  
 는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이번 전시를 필두로 2024년까지 경남, 울산, 부산, 대구, 대전, 제주 등에서 이건희컬렉션 지역  
 순회 전시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건희컬렉션 지역 순회전은 그동안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지역 간  
 문화 불균형을 극복하고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획된 전시이다.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이건희컬렉션 <사람의 향기 예술로 남다>전을 통해 고 이건희 회장의 나눔의 미학을 되  
 돌아보고 시민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근현대미술작가와의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깊은 감동을 느  
 끼셨기를 바랍니다.



# “전통문화예술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사랑하자”



김중채 이사장  
(사)임방울국악진흥회

대담 - 김정희 (시인, 광주문인협회 부회장)

〈김정희 (이하 문)〉 안녕하세요? 우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재창조해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발판을 만들어 가고 계신 임방울 국악 진흥회 김중채 이사장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사장님께 지역 전통문화 예술의 발전 방향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에서 임방울 국악진흥회의 비전과 기초예술 진흥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문

먼저 이사장님께서서는 전임 광주 향교의 전교도 지내셨고 지금은 임방울 국악진흥회이사장을 맡고 계신데 두 곳 모두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가장 의미 있는 수행 기관이라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서서는 평소 우리 시대정신과 전통문화예술은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김중채 (이하 답)〉

답

네, 반갑습니다. 우선 국민소득으로 볼 때 카타르는 8만 달러에 이르고 쿠웨이트는 10만 달러나 되지만 세계의 문화강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그 나라에 비해 소득수준이 3만 달러로 상대적으로 열악한 한국과의 문화 예술교류를 더 원하는 것은 나라마다 문화 예술의 수준이 다른 탓이라 생각합니다. 문화나 예술이 현저히 뒤떨어진 후진한 나라들과의 소통이나 예술교류를 원치 않는 것이지요. 제가 그곳에서 몇 번 회의에 참석해 봤지만 공연장이나 여타 시설도 잘 되어 있고 유희 노동력들도 많지만 부족한 점을 느꼈습니다. 요약해서 말씀 드린다면 소득이 높다고 선진국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국민들의 의식이나 행동, 사고방식이 문화 예술과 접목되지 않으면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 유관 기관 단체들이 실질적 활동을 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국악이 전통예술이고 명창의 70%가 예향 광주 출신이라는 통계에서 보듯 광주는 다른 지역과 비교 할 수 없이 전통 예술의 뿌리가 깊은 곳입니다. 다만 지금 이 상태가 한계점에 이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전통 예술을 사랑해주어야 다음 단계의 발전이 있을 텐데 지금은 아주 미흡합니다. 일본의 가부키나 중국의 경극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그 예술을 사랑하고 아깁니다. 물론 공연에 의도적으로 관객이 동원되고 국민의식이 깨어있기 때문이기도 하겠지요. 또 아르헨티나의 시민들이 얼마나 자국의 전통 예술인 탱고에 빠져있고 즐거워하는지 생각해 보면 길을 가다가도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는 이들을 흔하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전통 공연은 마당을 만들어 놓고 오시라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악을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고 현대적 예술 장르와 무한경쟁에서 경쟁력을 찾는 것은 함께 고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문

아마 객석을 위한 홍보나 공연장의 접근성 미흡과 평소 전통 예술에 대한 시민 의식 등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임방울 국악 진흥회에서는 국창 임방울 선생의 뜻을 기리는 ‘국창 임방울상’을 제정 4회까지 운영하고 있으신데 ‘국창 임방울상’에 대해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오랜 전통을 가지고 큰 언론사를 가진 방일영 국악상 처럼 확장하실 계획도 있으신지요?

답

신문사는 여러 면에서 홍보할 힘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이 좀 모자라는 측면도 있지만 올해 제가 기금을 10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이전에는 거의 없었지요. 그런데 그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1,2년 후 임기가 끝나면 이 재단을 그만 두어야 겠지요. 잔여 임기까지 하면 제가 이 재단에서 15년을 재직한 셈입니다. 어떤 분이 하시던지 임방울 선생 같은 분은 우리 역사에 유래를 찾을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이시지요. 미국에 가니 박물관에 명창 임방울의 테이프가 있었어요. 매우 놀라웠습니다. 이 점을 볼 때 일본이나 중국처럼 우리가 전통문화예술의 세계화를 하려면 우리 스스로 가치를 인정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문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을 예향이라는 지역적 슬로건과 걸맞게 발전시키기 위해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생각됩니다. 우리가 현 시점에서 깊게 고심하고 논의해야 할 점 일 텐데요, 재단이 10억 정도의 기금을 활용할 방안이나 이를 이용한 임방울 국악상을 발전시킬 비전을 말씀해 주신다면?



답

임방울 국악제는 올해 4회 째입니다. 현재는 지역에서 상금이 제대로 주어지는 전통 국악제는 임방울 국악제가 유일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상금이라는 생각입니다. 그 정도는 회비에서 충당해도 가능하지만 상금에도 관심을 갖고 앞으로 발전시킬 생각입니다.

문

이사장님은 '임방울국악제'에 특별한 자부심을 갖고 계신 것을 언론 인터뷰에서 읽었습니다. 수상자들의 이의 제기가 없는 심사의 투명성도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리 축제를 통해 배출된 소리꾼들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이나 중앙 무대의 초청 공연 같은 방송 매체를 통한 홍보 계획은 없을까요?

답

제가 특별히 심사위원들에게 당부합니다. 공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과 이 심사가 흐려지면 국악을 사랑하는 분들이나 국악전공자들에게도 피해가 된다는 것을. 그래서 임방울 국악제의 심사는 공정하다고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부산의 남인수나 이난영의 목포도 대중예술을 통해 지역이 알려 졌지만 우리 지역은 국창 임방울 외는 대중 예술에 내세울 인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국창 임방울의 훌륭한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겠지요. 일제 당시를 생각하면 당시 민중들은 남편은 징용가고 살림은 어려워 희망이 없을 때 임방울의 소리는 희망을 주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같이 울고 같이 기뻐하며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갔지요. 앞으로는 전통 장르에 대한 지역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문

우리 민중들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오면서 임방울 선생은 큰 희망을 주셨던 영웅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전 임방울 국악제는 전국의 텔레비전 방송전파를 통해 지역의 국악 축제 전야제가 생중계 됐기 때문에 전 국민이 임방울 국악제를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만 최근에 현대 음악이나 K-pop 등에 밀려 전통 국악이 소외되는 느낌도 있습니다. 임방울 국악제는 이 대회를 통해 배출된 명창들이 특별한 무대에 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중앙무대 같은 곳에서 더 활발한 활동을 하셔야 할 텐데요?

답

네 현재까지 약 30분 정도 넘는 명창들이 임방울 국악제를 통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한 무대에서 공연하기에는 이런 저런 개인 사정으로는 어렵고 대개 5~6분 정도 중앙무대에 추천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고 지금도 임방울국악제를 생중계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에 대한 대중적 접근을 위해 임방울 국악진흥회 건물에서 판소리 고법 가야금 병창 등 다양한 국악 강좌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효과보다는 고령화 사회 가정의 화목과 건강한 여가 문화라는 사회적 파급효과를 일정 부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70여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판소리에 대한 관심과 전통예술의 명맥을 꾸준히 이어가야지요

문

광주는 국악 공연을 위한 상설 공연장이 빛고을 국악전수관 외 몇 곳 안 됩니다. 그나마 공연을 위한 시설은 아쉽습니다. 본격 공연을 위해서는 무대나 조명, 음향을 비롯해 객석의 수도 열악하고 부족합니다. ‘보성 소리’나 ‘진도 소리’ 이런 소도시의 공연장이 지역의 명소로 알려져 관광코스로 사랑 받고 있는데 비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는 ‘국악’을 지역정통 예술의 자랑으로 내세우기에는 부족한 느낌입니다. 상설 국악 공연장 문제나 ‘국창 임방울’의 스토리도 조금만 각색하면 광주의 대표적 전통 콘텐츠로 재생산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지자체의 관심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답

그렇지요, 국악공연장 시설은 열악한 게 사실이고 지자체 장이 관심을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광주가 진도나 보성에 비교해도 시설이나 지자체의 관심도에서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전통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지도자의 의지가 필요하겠지요. 그리고 만들어 놓으면 문턱이 높지 않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발목을 잡는 문제점은 국악을 하대하던 구시대적 생각이 기성세대에게 뿌리박혀 있기 때문 일 것입니다. 저 같은 세대가 사라지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문

이사장님께서서는 국악과는 조금 방향이 다른 인문학 세미나나 기초 연구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광주 전남 발전 협의회”도 맡고 계신데요 인문학은 넓게 보면 인문학은 인간에 대한 사유 표현 실천의 종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의 길에서 개인의 ‘목표’나 ‘도전’ ‘열정’ 등 요즘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성공의 길과 우리 지역의 인문 철학 유교정신은 어떻게 접목 될 수 있을까요?

답

문제는 향교 같은 기관에 몸담은 관계자들이 좀 더 낮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광주의 향교는 특정인이 주인이 아니라 시민이 주인인 곳입니다. 그곳에는 인·의·예·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내하면 시민들이 찾게 되어 있습니다. 150만 시민들이 찾을 수 있는 친근한 향교가 우선 되어야 합니다.

문

모든 배움에 있어 기초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악 기초 예술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어떤 점이고 현재 임방울 재단에서는 국악 꿈나무 지원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가요?

답

교육생들의 해외 연수나 공연도 있습니다. 올해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는데 그곳에 있는 한인들도 차츰 그 지역화 되어 우리의 전통 문화가 잊혀져 가고 있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체계적 교육 문제가 절실합니다. 국악을 발전시키려면 첫째는 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다음은 지원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국악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국악 공연에서 박수치며 환호하고 전통 예술을 사랑하는 관객들의 힘은 매우 중요합니다. 객석에서 환호하면 격이 떨어진다는 기성세대들의 생각이 바뀌어야겠지요. 광주의 예술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장르는 국악입니다.

김정희

현대미술전인 비엔날레, 미디어 아트, 대중음악 등 디지털 시대 다양한 장르가 지역에서 상생하며 문화예술의 미래를 견인하고 있지만 우리 지역의 가치와 고유한 전통 예술의 진수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은 판소리와 국악 공연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아름다운 전통 예술의 가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할 지점이다. 서서히 열을 내는 온돌처럼 문화정책의 효과는 은근히 타올라야 한다. 급하게 성과만을 기대하는 것은 과정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때문이다. 가장 자연스러운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국창 임방울의 예술과 생애에 대한 지역적 관심과 전통문화 예술의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이 지금 필요하다.





## 문화, 지금 어디서

- 함평천지 ‘호남가비’ 앞에서 \_ 탁인석
- 환벽당의 옛 모습이 복원되는 순간을 기다리며 \_ 전고필
- 가야금에 대하여 \_ 구경화

## 함평천지 ‘호남가비’ 앞에서



탁인석  
광주문인협회 회장

2022년 7월 9일 11시, 함평나비공원에 우리 지역 최고의 문화자산인 호남가비를 제막했다. 날짜와 장소를 일부러 명기한 것은 단순히 비 하나를 세운다는 의미를 넘어선 것이다. 호남가湖南歌가 어떤 노래인가. ‘함평천지’로 시작하면서 호남 전체의 지명을 아우르는 불멸의 노래인 때문이다. 인간이 언어로 불멸의 예술을 만든다는 생각이 호남가를 접하면서 새삼 떠오른 생각이다. 호남가는 함평을 시작으로 제주를 포함한 호남의 54개 고을이 감기는 가락으로 엮어져 있다. 이들 호남의 고을명은 순간순간 그 지역의 특색과 풍광을 동반하면서 살아 움직이는 감동을 선사한다. 호남가는 작자미상으로 되어있으며 구한말의 노래로 보인다. 구한말이 어느 때인가. 국가는 동력이 쇠진한 채 사회는 병들고 백성의 살림은 극도로 곤궁하던 때이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동학東學군이 민족에게 희망의 불씨로 지퍼질 때 호남가는 무엇이였을까. 노래는 시대의 반영이라는데 유행했던 노래들을 들춰보면 그 의미가 그리 잘 나타날 수가 없다.

때가 때인 지라 호남가의 작자는 큰 의미가 없고 하등 밝힐 필요 또한 없지 않았을까. 풍전등화가 된 나라에서 민족을 일으키는 노래의 익명성은 필연이기도 하다. 호남의 고을명을 두루 거명한 것은 우리네 천석고향을 하나 하나 짚어가는 의미에 값한다. 마지막 구절처럼 '삼천리 좋은 경은 호남이 으뜸이라. 거드령거리고 살아보세'에 이르면 이 땅의 민중이면 누구나 절로 어깨춤이 덩실거리겠을 법하다. 삼천리가 전부 우리 땅이고 가장 좋은 삶의 터전이 호남이라는 자부심으로 이 험난한 세상을 이기고 살아보자는 소망이 읽히는 것이다.

호남가는 구한말을 거쳐 일제강점기로 오면서 민중 속의 노래로 불리다가 임방울 명창(1904~1961)을 만나면서 대유행의 길에 들어선다. 임방울선생은 광주출신 소리꾼이고 광주광역시 조례로 '임방울국악상'이 시상되고 있다. 대한민국 대표적인 소리꾼 임방울 국창의 목소리로 호남가가 불렸으니 민중의 환호 또한 얼마나 컸으랴. 임방울선생은 민족사적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다간 가객이었다. 9세에 소리 공부에 입문하였다 하나 이걸 추측일수도 있다. 우리 지역의 문인 중에 '강산에 늘봄잔치'라는 원로시인이 있는데 이 분의 선대가 많은 농토를 소유한 이른바 땅부자였다. 임방울 선생은 생계가 어려웠던지라 강시인의 집에서 깔답살이(머슴)를 살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송정극장에 창극이 들어왔다는 소문을 듣고 몰래 구경을 간 뒤로 일주일 넘기도록 들어오지를 않아 찾아나섰더니 웬걸 창극단의 노래에 빠져서 그곳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문지기를 살터라는 것이다. 이런 임방울이 호남가를 불렀으니 사랑받는 민중에게 그 반응이 폭발적이었을 것은 불문가지. 호남 출신이면 누구나 이 노래를 들으면 어깨부터 들썩거렸다. 특히 첫머리인 '함평천지 늪은 몸이 광주 고향을 보랴하고'까지는 저절로 흥얼거리게 된다. 그래서 호남가는 몰라도 '함평천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고 그로 하여 제목조차 '함평천지'인줄 아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이번 함평에서 세운 노래비의 일은 잘한 일이고 널리 추장할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지역문화 활동가 지형원 문화통 발행인이 발의하고 전국의 함평 향우들과 호남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 이뤄낸 쾌거이다.

이번 함평의 호남가비의 건립은 이 일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에서도 이에 뜻있는 장세영, 강원구, 김종, 기세규, 필자 등이 호남가비를 구상해왔고 호남가 박물관 또한 꿈꾸어왔다. <호남가>는 출항인을 포함 1200만 호남인의 망향가이다. 적지를 잡아 광개토대왕비보다 더 크게 호남가비를 세우고 호남가 박물관 또한 세우자는 것이다. 재원은 각 지자체가 십시일반하고 고을마다 서예가를 초치하여 439자를 조합해가면 호남가비나 박물관은 호남 최고의 볼거리가 되기에 손색이 없겠다. 호남가비 세우기는 이제부터다. 그 위치는 어디로 할까. 호남가 끝부분에 '남평루'가 등장하고 광주와 혁신도시 중간이니 삼질할 일만 남았다. 호남가비 세우기는 '호남가의 자화자찬'에서 시작해야 한다. 호남가는 가히 호남공화국의 호남애국가로 손색이 없다. 이번 제막식에서 호남가는 창밖으로만 묶어둘 일이 아니라는 것도 확인했다. 랩으로도 재즈로도 변환하면 그 흐름에 맞게 얼마든지 다양하게 불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가장 지방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은 새삼스런 화두이고 위대한 k컬처가 될 전망 또한 크고 크다.

(10.9매)





치마를 손으로 움켜쥐고 기왓장을 뒤져 참새를 잡아 아이들과 놀다가 할아버지 사촌 김윤제 공에게 꾸지람을 듣고 그 후로는 그런 짓국은 짓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먼저 떠올라 슬며시 웃는 곳이다. 16살의 송강 정철이 귀양와 있는 형을 찾아가다가 환벽당 아래 조대에서 씻고 있는데 사촌 김윤제의 꿈에 청룡이 승천하는 꿈을 꾸고 그곳에 준수한 청년 정철을 발견하고 10여년간을 사사했다는 이야기 또한 흥미롭게 전해져 오는 곳이다. 그러하니 당연히 이 정자의 주인공은 나주 목사를 지낸 사촌 김윤제로 명명될 수밖에 없고 1972년부터 광주시의 기념물 제1호로 지정되며 표지판에 떡 하니 그렇게 나와 있으니 모두가 사촌 김윤제가 후학을 가르치며 소유했던 장구지소로서의 면면을 기억할 따름이다. 하지만

2013년 명승으로 승격하고 그 뒤를 이어 이렇게 급하게 이뤄지는 긴급 발굴까지 하다 보니 땅속에 묻혔던 유적 뿐만 아니라 다양한 속내의 터무늬가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터를 발굴하는 학예사와 이야기를 나눠 보니 제일 먼저 환벽당 부지의 제초 작업부터 시작했다고 한다. 나는 짐짓 그에게 알קות을 질문을 했다. 뱀은 몇 마리 잡으셨나요? 라는 질문이었다. 정자 아래 연못이 있고, 음습하기 때문인지 환벽당을 갈 때 마다 뱀과 마주치는 것이 다반사였고, 거기에 바로 아래가 용소이니 용이 될려는 뱀과 이무기가 사는 것이 당연지사라 여겼던 것이다. 학예사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짓더니 서너마리 잡았다고 하기에 다행이라고 여지껏 사고가 나지 않은게 어쩌면 환벽당이 지닌 고매한 기품이 있기 때문이

라며 화제를 돌렸다. 파내려간 유지에는 담벼락과 기왓장과 세간살이의 그릇 등이 나오고 아궁이가 여러 개 있었던 흔적이 보였다. 마치 양반가옥의 살림집과 같아 보이는 것이었다. 더 넓게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고 이렇게라도 집터의 흔적을 발견했으니 이제는 덮고 조사 보고서를 올려 다음 단계로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정말 소중한 유산을 찾았다는 감회어린 학예사의 설명을 들었다. 지난해인 2022년 문화재청에서 여러 누정이나 원림의 창건자에 대한 유래를 정정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곳 환벽당 또한 사촌 김윤제의 아버지인 김후가 건립하였던 것을 김윤제가 증수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지척에 있는 식영정도 구전으로는 송강 정철의 정자라고 하고, 기록으로는 서하당 김성원이 건립했다고 하는 것을 석천 임억

령의 후손인 임남형 어르신이 기록을 근거로 학계와 문화계를 수십년을 다니시다 마침내 석천 임억령이 건립한 것이라고 개정해 냈듯이 우리는 이제야 저 터에 자리를 펼치신 분이 사촌의 아버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 되었든 환벽당은 정면쪽은 살림집이 있었다는 방증이 되는 것이고, 아궁이의 숫자나 담장의 둘레를 보더라도 집의 규모는 매우 넓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발굴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이제 복구청이 주도하여, 문화재 위원들과 함께 정밀발굴의 단계를 문화재청으로부터 승인받아 옛터를 찾아내고 다시 복원해 내는 일련의 과정이 전개되어야 할 시점이다. 한동네 세 개의 명승이라는 소쇄원, 환벽당, 식영정의 명성이 사실은 점점 관심도가 낮아지고 있다. 가사문학관





이 들어서고, 호수생태원이 들어서며 더욱 각광을 받으리라고 예견했지만 마치 생애주기가 있듯이 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예전 같지 못한 형편이다. 이를 상쇄할 방법은 자연과 조응하는 전통문화 속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걸맞는 조영과 건축이 필요한 것이 해답이 될 것이다. 크고 웅장한 것에만 길 들여진 이즈음의 건축 패턴과 다른 작지만 소박하고, 자연에 순응하며 끌어 들이지 않고 둘러 볼 수 있는 차경이란 조영원칙을 빌어오면, 무등산과 창계와 지실의 프락과 문필봉이 모두 환벽당의 시야에 들어오는 절묘한 공간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신숙주의 증손자인 영천자 신잠이 사방이 푸르름으로 고리를 이루고 있는 집이란 환벽당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전해오는 점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시누대 몇 개 남았지만 대숲이 있었던 1950년대를 기억하는 분도 있다. 또 한편으로는 적송의 푸르름도 어느 누정 못지 않게 아름다운 곳이 환벽당이다. 영천자는 1521년부터 37년까지 17년간을 장흥에 귀양와 있었던 분이다. 그리고 1543년부터 6년간을 전북 정읍의 태인현 현감을 지내며 학문을 권장하고 선정을 베풀어서 태인사람들이 살아있는 이분을 칭송하는 생사당을 만들었고, 그와 부인과 아들과 시녀와 호랑이를 새긴 목각상 즉, 영상을 만들어 그를 기리는 제를 올리기까지 한 분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비들의 처소로서 환벽당을 보는 시각을 송강 정철에게만 국한 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훗날 우암 송시열이 직접 환벽당의 현판글을 써준 것도 환벽당이 갖춘 품격이

다. 이런 품격의 공간, 선비의 공간에 1590년 여름 복날 탁열을 했던 기록이 서하당유고와 적송집에 남아 있다는 점도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양반들의 민속행사로서 탁열의 기록 또한 일시적 재현이 아니라 상설화를 통해 새로운 매력물로서 방문객들과 공감하는 행사로 만들 필요성 또한 상존하는 곳이 바로 환벽당 일원이다.

환벽당의 유구가 제대로 밝혀지고 복원이 되어 일동지 삼승이라는 이 명소가 광주시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기억하고 찾아가야 할 공간이 되는 날을 꿈꾸는 것만으로도 입꼬리가 올라간다.



# 가야금에 대하여



구경화  
북구문화원 가야금 교실 강사



우리나라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나요?

북과 장구도 떠오르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야금입니다.

가야금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현악기이고

우리 국악기 중 가장 인지도가 있기도 하고 영롱하고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가야금은 소리도 멋지지만 연주하는 사람의 손놀림이나 표정, 자세가 가야금에서 나오는 소리와 함께 어우러졌을 때 특히 그 멋짐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가야금에 종류에 대해 알아보니다.

정악 가야금 : 정악이라는 음악장르를 연주하며, 줄 사이가 넓어서 산조가야금처럼 빠른 장단에 곡은 연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느리고 차분한 연주를 할 때 사용하며 궁중음악이나 풍류음악 등 정악연주에 사용됩니다.

산조가야금(전통가야금): 정악 가야금과는 완전 다르답니다. 산조의 느린장단부터 빠른 휘모리 장단까지 연주하기 좋게 줄 사이 폭도 좁고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민요반주나 산조, 시나위 연주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개량가야금: 국악 대중화로 가기위한 악기 개량으로 18현, 22현, 25현 가야금 등이 만들어졌고, 지금은 주로 25현 가야금이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야금은 오동나무로 만들어진 길고 넓적한 몸통 위에 기러기 발 모양의 안족이 올려져있고 그 위에 명주실을 꼬아만든 줄이 올려져 있습니다.

악기의 종류에 따라 줄 수와 줄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가야금은 바닥에 앉거나 의자에 앉아서 연주가 가능한데 바닥에 앉아 연주할 때는 책상다리로 앉아 악기를 올리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뜯거나 통겨서 소리를 냅니다.

왼손으로는 줄을 누르거나 흔들어 소리를 꾸며주는데 음을 꺾어 나(퇴성) 밀거나 (추성) 떨면서 (묘성) 농현을 해줍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충분히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답니다. 잘하려 조바심을 내면 금방 지치거나 질린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게 마음을 비우고 여유롭게 즐겨보시면 좋겠습니다.





## 복구문화사료

- 광주에게 발견되는 조탑(造塔) 신앙의 흔적 \_ 김학휘
- 광주의 옛 면명(面名)-경양면(景陽面)과 경양(景陽)방죽 \_ 조강봉
- 오륜 \_ 김중환

# 광주에서 발견되는 조탑(造塔) 신앙의 흔적



金 學 輝  
(前光州廣域市文化財專門委員)

예로부터 자연석을 소재로 쌓은 돌탑은 돌 자체가 지닌 영구불변성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종교 원리를 이용한 신앙 대상물이었다. 돌탑은 돌이 지닌 주술성을 토대로 주민들 각자가 시차를 두고 하나씩 하나씩 정성껏 쌓아 올려 완성된다. 그러므로 돌탑은 개인의 창작물이 아니라 주민공동체의 발원 속에서 만들어진 원초적 신앙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돌탑은 마을로 들어오는 액이나 질병, 살(煞), 호환(虎患), 화기(火氣) 등을 막기 위해 쌓은 신앙 대상물이다. 나아가 돌탑은 마을 앞의 허한 방위를 막기 위해서나 특정한 모양의 지형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쌓은 단순 비보물(裨補物)이기도 하다.

돌탑 가운데 조탑은 주변의 자연석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돌을 쌓아 일정한 높이로 기단을 만들고 그 중심에 돌을 올려 세우면 '조탑造塔'이라고 하며 당산제와 유사하게 해마다 탑제를 지내는 마을신앙의 대상물이었다. 이러한 조탑 신앙은 주로 남부지방에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남방 문화적 요소가 강한 토착신앙이라고 할 수 있으며 다른 신앙 대상물에 비해 풍수적인 비보(裨補)신앙의 모습을 가장 강하게 지니고 있다. 그러나 고갯마루나 사찰입구에 지나가는 길손이 다양한 크기의 돌을 마구잡이로 던져 잡석을 쌓아놓은 서낭당이나 개인이 신을 향한 구도의 마음으로 쌓은 돌탑과는 구별된다. 그 이유는 조탑은 주민들의 소망과 정성이 모아진 비교적 정교한 마을신앙의 대상물이기 때문이다.

조탑은 또한 흔히 돌을 쌓아 올려 만든 탑으로서 그 명칭은 '탑' 또는 '돌탑'이라고 부르지만, 경상도와 전라도 지방에서는 '조산(造山)', '조산탑' 또는 '조탑(造塔)'이라고 부른다.

제주도에서는 ‘방사용탑’, ‘거옥’, ‘가마귀동산’이라고도 하며 이 밖에 충북지역에서는 ‘수살막이’, 전라북도에서는 ‘도탑’, 경상도 지역에서는 ‘밥무덤’이라고 부르고 있어 지역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지고 있으나 조탑신앙의 근원적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주·전남의 젓줄인 영산강 유역에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조탑은 19기가 조사되었는데, 이를 분류하면 비보조탑은 11기, 비보신앙조탑 5기, 기타 3기로 조사되어 있다. 그러나 영산강 유역에서 신앙조탑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볼 때 영산강유역의 조탑 조성 목적은 본래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비보 풍수적인 것을 수행하기 위해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조탑은 형태나 기능에 있어서 사찰에 정교하게 일정한 비례로 조성된 일반 석탑과는 전혀 다른 신앙체계를 갖고 있다. 조탑 형태는 돌을 원형으로 쌓아 올려서 맨 꼭대기에 상대적으로 큰 돌을 세워 표식을 한다.

조탑의 위치는 사찰의 경우 사찰 입구에 조성하는 경우가 많으며 농경지에 세워진 경우는 마을과 길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광주지역에서는 남구 도촌동 사례가 유일하게 남아있다. 전남지방에서는 주로 구례, 곡성, 광양, 화순, 담양 등의 산간지역에서 마을 입구에 많이 세워져 있으며 학자에 따라 이를 적석형 장승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사찰의 경우 그 기능은 주로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사찰의 입구 등에 세워져 사찰의 수호나 개인의 소원을 기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거석 신앙은 제주도 방사탑의 기능과도 유사하다.

조탑의 규모는 사찰에 조성되어 있는 석탑과는 구조적으로 다르다. 조탑은 사람의 키보다 약간 높게 원형으로 돌을 쌓아 올린 후 정상부 중앙에 1매석으로 된 부정형의 돌을 고정시켜 올림으로서 단순하게 1매석으로 구성된 선돌이나 장승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조성된다.

육지의 조탑 형태도 한반도 최남방 섬 지역 제주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방사탑과 유사하며 세워진 위치도 마을 입구나 건물 측면에 세워져 돌하르방과 거의 유사한 장소에 세워진다. 또한 일부이긴 하지만 조탑은 수구막이의 기능도 가지고 있다. 수구水口란 도교에서



제주도 방사탑

물의 흐름에 따라 복과 액이 들고 나는 것을 믿는 데서 온 민간 신앙적 용어이다. 선돌처럼 마을 입구에 세운 조탑은 마을 밖에서 들어오는 재액을 막고, 마을 안에서 흘러나가는 복을 막아 준다는 뜻에서 수구막이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또 ‘조탑造塔’이라는 용어는 물론 불교에서 차용한 것이기도 하지만 정원을 꾸미기 위해서 또는 풍수적으로 필요해서 만드는 조산造山과 같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다는 의미도 지녔다. 특히 마을 지맥이 허한 곳을 다스리기 위한 산천비보의 기능과 재물이나 복록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수구막이 기능을 겸하고 있다.

오늘날은 개인들이 조경적 차원에서 가정집 입구나 도로변에 돌탑을 세운 경우도 있고 유명 산의 등산로 입구나 지나가는 길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개인들이 지나가다가 돌을 하나씩 하나씩 올려놓고 가는 것이 마치 조탑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들은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오는 조탑신앙의 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방사탑(防邪塔)은 제주도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돌로 탑을 쌓아 만든 돌탑이다. 마을 입구나 주변 등 특히 지질학상으로 뚫린 지역에 쌓아놓은 돌탑의 일종이다. 재료는 제주 현무암을 이용하여 대체로 원뿔모양으로 3단의 돌을 쌓아 올리고 있지만 그 중에는 사각형으로 쌓아 올린 것도 드물게 볼 수 있다. 탑 위에는 석상을 세우거나 나무 등을 이용하여 솔개나 까마귀 같은 형상물을 꽂아놓고 있다. 이 방사탑은 마을에 따라 ‘거옥’, ‘거옥대’, ‘격대가마귀’, ‘가마귀동산’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탑은 한마디로 자연재해가 많은 제주도 마을에 재앙이 침입하는 것을 막고 액을 막아주는 방재시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탑은 마을에 불행이 닥치거나 재난이 자주 발생했을 때 쌓아놓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많이 생겨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마을에 허한 곳을 채우는 비보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다. 방사탑의 크기는 마을마다 일정하지는 않으며 극히 소수의 예를 제외하면 높이는 2~3m, 기단 지름은 3~5m 정도로 마을에 따라 1기에 그친 곳이 있기도 하지만 많은 곳은 5~6기까지 세우는 곳도 볼 수 있다.

제주 전역에는 애월읍 곽지리 과오름과 이호동 골왓마을 이호태우해변, 옹포리, 화순리 방사탑 등 38기 방사탑이 남아있고 이 가운데 17기가 민속자료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이러한 방사탑은 마을의 안녕을 보장하고 수호하여 준다는 신앙이 있음을 보여주는 제주도의 민속문화재이다. 타지방의 ‘장승’이나 ‘숫대’와 같이 마을의 방사(防邪)기능을 하면서도 돌을 나르고 함께 돌을 쌓는 공동작업은 공동체 정신을 확인할 수 있는 제주도의 중요한 문화유산이라 할 수 있다. 마을사람들은 탑을 세운 방향이 허(虛)하고 사(邪)가 비추기 때문에 탑을 세워 살(煞)을 막는다고 한다. 제주의 방사탑 거옥대는 육지의 조탑보다 규모가 크며 주로 3층의 돌을 원형으로 쌓고 있어 육지에서 발견되는 조탑과는 형태가 약간 다르다.

제주도 방사탑은 바닷가나 중산간마을에 주로 위치하고 암수 한쌍으로 조성된 경우도 있으며 일정한 띠를 이루면서 봉개동 방사벽처럼 탑으로 부족하면 방사벽을 쌓기도 한다.

한편 마을 어귀에 위치한 성황당은 조탑과 비슷한 기능을 가지면서 돌을 쌓아놓는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으나 성황당은 통행이 잦은 동구 밖이나 고갯마루 신목神木아래 쌓아놓은 돌더미로서 이곳에는 마을과 토지를 수호하는 성황신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에는 음력 정월초에 부인들이 간단한 제물을 차려놓고 집안의 안녕을 빌기도 하였으며 주민들이 이곳을 지날 때는 거리를 배회하는 악령을 떨치기 위해 두 세 개의 돌을 던지고 침을 뱉기도 하였다. 성황당의 신목에는 아이들의 장수를 비는 형곶조각을 걸기도 하였으며 상인들의 재리財利를 위해 짚신 조각을 걸어 놓기도 하였다.

현재 광주지역에 남아있는 조탑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 1. 도촌동 조탑

남구 도촌동 조탑은 마을 앞에 위치한 김재철씨와 양동필씨 논 2곳에 있다. 이곳 조탑의 원래 위치는 이 마을 앞 논밭에 있었으나 경지정리로 인하여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 도촌동 조탑의 형태는 마치 사찰 입구의 조탑이나 제주도의 방사탑 모양으로 원형의 기단을 쌓고 꼭대기 중앙에 1매석의 선돌을 세웠다.



도촌동 조탑

양동필씨 논에 위치한 조탑은 높이 150cm의 화강석을 6단으로 쌓아 올려 그 위에 선돌을 세웠는데 선돌의 높이는 110cm, 폭 50cm, 두께 39cm로서 1976년 1월 25일에 단을 쌓고 다시 세웠다는 기록이 보인다.

김재철씨 논에 위치한 조탑은 화강석을 8단 정도 쌓고 돌 사이 틈새는 시멘트로 마감하고 그 위에 선돌을 세웠으며 기단에는 정월 대보름날 당산제를 지낸 후 새끼줄을 감아 놓았다. 선돌의 모양은 상협하관형으로 높이 110cm, 폭 76cm, 두께 30cm 크기이다.

마을에서 행해지고 있는 조탑에 관계된 마을 신앙은 정월 대보름날 농악놀이와 함께 지신밟기를 하고 제를 지내며 기원 대상물은 마을주민의 무병장수와 농사의 풍요를 기원하였다.

조탑을 세운 기단 하부에는“옛부터 전통으로 내려온 石碑는 三頭槍今祺로 해석되어 1976년 1월 25일 改築하였음”이란 글귀가 보이며 주변에서는 백제시대로 보이는 경질토기가 군데군데서 발견되고 있는데 조탑의 조성과는 현재로서는 별다른 상관관계는 찾아볼 수 없으나 이곳 경질토기의 분포 의미는 백제시대부터 이곳에 주민들의 주거지가 조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원효사 조탑

원효사 조탑은 북구 금곡동 무등로 1514-35번지에 해당하는 원효사 입구에 2기의 조탑이 있는데 정확한 위치는 원효사에서 무등산으로 올라가는 갈림길에 1기가 위치한다. 2기의 조탑 중 1기는 쌓아놓은 돌의 외부 흔적은 주변의 크고 작은 자연석을 이용하여 틈새를 잡석으로 메꾸



원효사 입구 조탑

어 매우 매끄럽게 처리하여 쌓은 것으로 보면 이곳 조탑은 사찰에서 인위적으로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1기는 평소 원효사의 방문객이나 무등산 등산객들이 하나둘씩 돌을 올려놓고 마음속의 소원을 기원하면서 오랜 기간에 걸쳐 쌓아진 것으로 보인다.

조탑 정상부에는 별도의 선돌은 올려져 있지 않으나 잡석들을 마감돌로 사용하여 상부를 처리하였다. 현재의 규모는 높이 350cm, 둘레 780cm, 폭 360cm 크기에 자연석을 20단 정도로 쌓아 올렸다.

### 3. 각화동 조탑

각화동 조탑은 각화산 중턱에 위치한 점술원인 화암사 입구 1기와 그 위쪽에 위치한 신흥사찰 용문사 입구 2기 등 모두 3기가 조성되어 있다. 이 조탑들의 조성 시기는 30~40년에 불과하지만 조탑신앙이 현재에도 주민들의 의식속에 존속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화암사 입구의 조탑은 서쪽편에 인위적으로 구멍을 내어 그 안에 촛불 등을 켜놓을 수 있도록 하여 무엇인가 소원을 빌었던 흔적을 볼 수 있으며 규모는 높이 160cm, 폭 200cm이다.

용문사 입구의 조탑은 2기가 나란히 마주 보고 있으며 상부에는 소규모의 선돌을 별도로 세워 도촌동의 조탑과 같은 형태이지만 크기는 소규모이다. 이곳 조탑의 기능 역시 금곡동 원효사 입구 조탑의 기능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세워진 조탑이라고 할 수 있다. 규모는 1호 높이 170cm 폭 100cm. 2호 높이 180cm 폭 90cm이다.



각화동 조탑

광주의 옛 면명(面名)

## 경양면(景陽面)과 경양(景陽)방죽



조 강 봉  
한국지명의 어원 연구 저자

1789년 『호구총수』에 광주 동면(東面) 20리, 서면(西面) 21리 중 동면에 경양리(景陽里)가 있고, 1912년 이전 지명 자료인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 경양면(景陽面)을 볼 수 있다. 경양(景陽)이란 지명은 경양(景陽)방죽으로부터 유래했다.

경양방죽은 1960년대까지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계림1동)에 있었던 저수지이다. 박선홍은 『광주1백년②』(1994:232쪽)에서 조선 세종 22년(1440)에 광주목사로 부임한 김방(金倣)이 세종의 중농정책을 받들어 광주지역 전답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2년의 공사기간에 완공했다 했다. 규모는 대략 15 헥타르, 수심은 10m에 달했고 규모로 볼 때 호남 지역 최대의 인공호수였다.

경양방죽 안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었고 호수의 주변으로는 수백년 된 팽나무, 왕버드나무, 귀목나무 고목들이 즐비했다고 한다. 1940~50년대까지만 해도 광주시민들의 사랑받는 명소로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뱃놀이를 했고 겨울에는 얼어붙은 방죽 위에서 썰매와 스케이트를 탔다.

1935년, 당시 전라남도지사였던 야지마 스기조(矢島杉造)를 중심으로 매립 계획이 세워졌다. '일본건국기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계림초등학교 뒤에 있던 경호대라는 산을 헐고 일본인들의 거주구역을 만드는 계획으로 1936년 광주부는 공유수면 4만여 평의 매립을 허가하여 당시 급격히 증가하던 인구를 수용하고, 공유수면매립을 통해 땅을 팔아 재원을 충당하려 했던 것이라 한다.



1930년대 1차 매립지와 1960년대 2차 매립지

광주부민들은 이에 반대해 저명한 최흥종 목사를 위원장으로 경양방죽 매립반대 투쟁 위원회를 결성하여 조선총독부에 청원하는 등 반대운동을 벌였지만 총독부는 이를 묵살했고 결국 매립이 강행되었으며, 다만 여론을 의식했는지 본래의 전면 매립에서 계획이 변경되어 1/3은 호수로 남게 되었다. 매립 이후 1940년부터 2년간 매각이 진행되었고, 1941년에는 매립지에 부영주택을 건설하기도 했다.

8.15 광복 이후 광주의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남은 경양방죽은 제대로 된 관리가 되지 않아 늘어난 인구에 오염이 심해 수질이 점점 악화되어 저수지 기능을 상실했다. 1966년경 광주시는 이런 연유로 남은 경양방죽마저 매립을 결정하고 태봉산을 헐어 그 토사로 경양방죽을 매립했다. 그리고 1968년 경 광주시는 시내의 중심도로인 금남로를 8차로로 확장공사를 계획했는데 당시 정부는 과다하다 여겨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기에 광주시에서는 태봉산을 헐어 그 토사의 일부를 팔고 경양방죽을 매립해 만든 계림동 신시가지를 분양해 그 돈으로 금남로 확장공사를 했다.

경양방죽은 사라졌지만 골목길 구획으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동계천로6번길-무등로 306번길-무등로307번길 라인이 원래 경양방죽의 서쪽 경계, 경양로217번길과 중흥로209번길을 반달 모양으로 잇는 골목길 라인이 1960년대 매립 직전 경양방죽의 동쪽 경계였다. 이 길들은 2011년에 경양방죽 독방길(일명 '개미길')이라는 산책길로 조성되었다.

이후 경양방죽이 메워진 자리에는 1969년 광주시청을 지어 이전하였다가, 2004년에 광주광역시청이 다시 상무지구로 이전한 후 지금은 홈플러스 계림점이 들어서 있다.



『근세한국5만분의1지형도』 경양지(연지)

\* 참고문헌 박선홍, 「광주 1백년」, 심미안, 2012. 광주일보, 1930년대 물길 덮여 도로·주거지로-개발에 문힌 물의 도시-, 광주드림, 경양방죽이 간직한 비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경양방죽 이야기, 한국시민기자협회, 광주이야기-경양방죽.<출전<https://namu.wiki/>. 2022.6. 20.접속>

# 오륜(五倫)의 근원(根源:基本)



김 중 환  
(社) 한국전예원 광주광역시 북구지역원 원장

## 1. 단군왕검(檀君王儉)의 덕치사상(德治思想)은 오륜(五倫)

- ◆ 왕(王)이 신우(神祐)에게 명하시기를 “백성들에게 五倫(父子有親부자유친하며 君臣有義군신유의하며 夫婦有別부부유별하며 長幼有序장유유서하며 朋友有信붕우유신이니라.)을 가르치며 관후(寬厚)와 박애(博愛)를 명심하라” 하시었다. 《단기고사(檀奇古史)에 단군왕검(檀君王儉)의 증신》

## 2. 단군왕검(檀君王儉) 성(姓)은 환(桓)이요, 휘(諱)는 검(儉)이시다.

- ◆ 고조선(古朝鮮) 건국신화(建國神話)는 하늘의 자손임을 말하며, 환웅(桓雄)은 부족과 곰송배 부족이 연합해서 탄생하였는데 단군은 우리 역사 최초의 건국(建國)한 국가로서 기원전 2333년경 단군왕검(檀君王儉)이 건국했다고 전하며, 고조선의 단군들을 자식들에게 왕(王)위를 세습하였다고 전하고 있으나 신화(神話)가 아니고 단군왕검(檀君王儉)은 실존(實存) 인물이다.

요여병립(堯與竝立) : 기(起)=당요(唐堯) 25년 무진년[(戊辰年 : B.C. 2333)]=단군 원년(檀君元年)건국과 같은 時代이다.(중화의 당나라 요(堯)임금 25년 단군조선이 나란히 같이 섬)

### 3. 단군왕검(檀君王儉) =

제1세 단제(檀帝)시니 아버지는 환웅(桓雄)이시고 배달국의 18세 거불단(居弗檀) 환웅천황(桓雄天皇)이며 어머니는 웅씨족(熊氏族) 단국(檀國)의 왕(王)녀이다. 할아버지는 환인천황(桓因天皇)이시다. 아들은 제 2세 단제(檀帝) 부루(扶婁), 제3세 단제(檀帝)는 가락(嘉勒), 제4세 단제(檀帝)는 오사구(烏斯丘), 제5세 단제(檀帝)는 구을(丘乙), 제6세 단제(檀帝)는 달문(達門), 제7세 단제(檀帝)는 한속(翰粟), 제8세 단제(檀帝)는 우서한(于西翰), 제9세 단제(檀帝)는 아술(阿述), 제10세 단제(檀帝)는 노을(魯乙), 제25세 단제(檀帝)는 솔나(率那), 이시다.

### 3. 오륜(五倫: 사람에게 큰 다섯 가지의 인륜)

◆ 맹자\_왈 인지유도야에 포식난의하여 일거이무교면 즉근어금수일새 성인이 유우지하사 사설(설)로 위사도하사 교이인윤하시니 부자유친하며 군신유의하며 부부유별하며 장유유서하며 봉우유신이니라 (孟子\_曰 人之有道也에 飽食煖衣하여 逸居而無教면 則즉近於禽獸일새 聖人이 有憂之하사 使契(설)로 爲司徒하사 教以人倫하시니 父子有親하며 君臣有義하며 夫婦有別하며 長幼有序하며 朋友有信이니라) 《小學·孟子》

해설 : 맹자가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도리(道理)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듯이 옷을 입어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금수(禽獸)에 가까워진다. 그러므로 성인(聖人)이 이를 근심하시어 설(契)로 하여금 사도(司徒)를 삼아 인윤(人倫)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부자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군신 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부부간에는 분별이 있으며, 장유 간에는 차례가 있으며, 봉우 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소학 입교 제일》(성인은 요(堯)를 말한다.契(설)은 신하의 이름이고 사도(司徒)는 관직의 이름이다. 윤(倫)은 차례이다)

◆ 순.명설왈 백성이 불친하며 오품불손일새 여작사도니 경부오교하되 재판하라(舜.命契설曰- 百姓이 不親하며 五品不遜일새 汝作司徒니 敬敷五教하되 在寬하라)

해설 : 순임금이契(설=신하이름)에게 명령(命令)하셨다. "백성이 친하지 않으며 오품(五品)이 순하지 않으므로 너를 사도(司徒: 사도=벼슬 이름)로 삼노니, 오교(五教)를 공경(恭敬)히 펴되 너그러움에 있게 하라." 《小學·孟子》

◇ 五品 = 父子·君臣·夫婦·長幼·朋友.(五倫 : 書經舜典篇)

오품 = 부자·군신·부부·장유·봉우. (오륜 : 서경 순전편)

◇ 五教 =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순임금은 五教를 펼쳤다.)

오교 = 부의·모자·형우·제공·자효.(순임금은 오교를 펼쳤다.)

◆ 이씨왈 수.십칠장은 명부자지친이요 명군신지의요, 명부부지별이요 명장유지서요

명봉우지교니라.(李氏曰 首.十七章은 明父子之親이요 明君臣之義요, 明夫婦之別이요 明長幼之序요 明朋友之交니라.)

해설 : 이 씨가 말하였다. “처음은 부자간의 친함을 밝혔고, 군신간의 의리를 밝혔고, 부부간의 분별을 밝혔고, 장유간의 차례를 밝혔고, 봉우간의 사귀음을 밝혔다. 《소학·맹자·서전 순전편에 있음》

◆ 삼대지학이 개소이명인윤야니 능시사자면 즉어인윤후의니 학지위도하이가차리오  
(三代之學이 皆所以明人倫也니 能是四者면 則 즉於人倫厚矣니 學之爲道何以加此리오)

해설 : 삼대의 학문은 모두 인윤(人倫)을 밝힌 것이었으니 이 네 가지에 능(能)한다면 인윤(人倫)에 두터우니(厚) 배우는 도가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는가. 《논어(論語)》

#### 4. 오륜(五倫)

◆ 부자유친하며(父子有親) : 아버지와 자식은 친애(공경과 사랑)함이 있으며.

☆ 오직 父子와 형제만이 천윤인 친속이고, 타인으로서 합한 것이 세 가지다. 그러나 부부(夫婦)는 천속(天屬 : 천륜인 친속)이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다.

◆ 군신유의하며(君臣有義) : 임금과 신하(현: 정부와 국민)는 의리(義理)가 있으며

◇ 신하의 도(道)는 의(義)를 따른 것이지 임금을 따른 것은 아니다.

◆ 부부유별하며(夫婦有別) : 지아버와 지어미는 분별(分別)이 있으며.

※ 그러나 부부는 천속(천륜인 친속)이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다.

◆ 장유유서하며(長幼有序) : 어른과 어린이(젊은이)는 차례가 있으며

◇ “순임금이 설(契)에게 명령하여 오교(五教)를 가르치게 하시면서 형제(兄弟)라고 말하지 않고 장유(長幼)를 말 한 것은 종족(宗族)과 향당(고을)에 모두 어른이 있고 다만 동기간(同氣間)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 봉우유신이니라.(朋友有信) : 봉우 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 신의(信義)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 신(信)이 봉우(朋友)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있어 신실(信實)함이 있어야 한다.

상은 오교지목(五教之目)이니라 : 위는 오교(五教)의 조목(條目)이니라.《소학》

## 5. 오륜(五倫)의 근원(根源 : 基本)

◆ 明父子之親은 범 삼십구장이라 : 부자간의 친함을 밝힌 무릇 삼십 구장이라

수 사장은 명사친지예요 차 육장은 명범위인자지예요 차 오장은 명경친명지예요 차 오장은 명광애경지예요 차 삼장은 명간과지예요 차 이장은 명시양질병지예 요 차 이장은 명근신지예요 차 육장은 명제향지예요 인지선이 막대어효라. 고로 차 삼장은 개언효친지도요 기불선이 막대어불효라. 고로 이후삼장으로 경지어말언하니라(首四章은 明事親之禮요 次六章은 明凡爲人子之禮요 次 五章은 明敬親命之禮요 次五章은 明廣愛敬之禮요 次三章은 明諫過之禮요 次 二章은 明侍養疾病之禮요 次二章은 明謹身之禮요 次六章은 明祭享之禮요 人之善이 莫大於孝라. 故로 次三章은 皆言孝親之道요 其不善이 莫大於不孝라. 故로 以後三章으로 警之於未焉하니라. 《소학(小學) 집주총논(集註總論)》

해설 : 처음 네 장(章)은 아버이를 섬기는 예(禮)를 밝혔고, 다음 여섯 장(章)은 무릇 사람의 자식(子息)된 자의 예절(禮節)을 밝혔고, 다음 다섯 장은 아버이의 명령(命命)을 공경(恭敬)하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다섯 장은 사랑과 공경(恭敬)을 넓히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세 장은 잘못을 간(諫)하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두 장은 질병(疾病)에 모시고 봉양(奉養)하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두 장은 몸을 삼가(謹)하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여섯 장은 제향(祭享)의 큰 뜻을 밝혔으며, 사람의 선(善)은 효(孝)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다음 세 장은 모두 아버지에게 효도(孝道)하는 도리(道理)를 말하였고, 불선(不善)함은 불효(不孝)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뒤의 세 장(章)은 경계(警戒)하였다.

◆ 부자유친(父子有親)하며 ; 아버지와 자식은 친애(親愛=공경과 사랑)함이 있으며

◇ 명부자지친(明父子之親)이요 : 부자간의 친함을 밝혔다.

◇ 부자(父子)는 골육지친(骨肉之親) : 골육(骨肉)의 친함이다.

◇ 오직 부자와 형제(兄弟)만이 천륜인(天倫人) 친속(親屬)이고, 타인으로서 합한 것이 세 가지다. 그러나 부부(夫婦)는 천속(天屬: 天倫人 親屬친속)이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다.

◇ 사람의 좋은 효(孝)보다 큰 것이 없으므로 모두 아버지에게 효도(孝道)하는 도리(道理)를 말하였다.

◇ 효(孝)는 부모(父母)를 잘 섬김을 효라 하고, 형(兄)과 어른을 잘 섬김을 제(弟:悌)라 한다.

◇ 선(善)은 천명(天命)으로부터 준 바의 본연(本然: 근본)이다.

◇ 선(善)을 따름은 본연(本然)이다.

◇ 효제(孝弟)는 순(順)한 덕(德)이다. 그러므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 애친경형과 충군제(悌)장이 시왈병이라 유순무강이니라(愛親敬兄과 忠君弟(悌)長이 是曰秉彝라 有順無彊이니라)

◇ 아버이를 사랑하고 형을 공경(恭敬)함과 임금에게 충성(忠誠)하고 어른에게 공손(恭遜)함 이것을

병이(秉彝: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떳떳한 천성(天性)이라 한다. 자연스러움이 있고, 억지로 함은 없다.

◇ 사랑과 공경(恭敬)을 겸하여 섬기(事)는 대상은 아버지 뿐이다.

◇ 일기부모하면 기죄여산이니라(一欺父母하면 其罪如山이니라) :

한 번이라도 부모님을 속이면, 그 죄가 산과 같은 것이다.

◆ 자왈 부효는 덕지본야요 교지소유생이니라.(子曰 夫孝는 德之本也요 教之所由生이니라.)

해설 : 공자(孔子)가 말씀하셨다. 효(孝)는 덕행(德行)의 근본(根本)이고, 교화(教化)가 이로 말미암아 나오는 바이다.

◆ 효제야자는 기위인지본여인지(孝弟也者는 其爲仁之本與인지.)

해설 : 효도(孝道)와 공손(恭遜)은 인(仁)을 행(行)하는 근본(根本)이다.

◇ 인(仁) = 부모(父母)를 잘 섬(事)기는 것을 인(仁)이라 한다.

◇ 효(孝)와 제(弟: 悌공경할 제)라는 것은 인(仁)을 행(行)하는 근본(根本)이 되는 것이다.

◇ 제(悌) = 형(兄)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제(弟)라 한다. 마음의 덕(德)이다.

◇ 애친(愛親)·경형(敬兄)·충군(忠君)·제장(弟長) 이 네 가지는 곧 사람이 간직하고 있는 떳떳한 성(性)이니, 모두 자연에서 나온 것이요 힘써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 인(仁: 사랑) = 눈물: 장수(長壽)의 비결

◇ 인(仁)은 본성(本性)이요 효제(孝悌)는 용(用)이다. 성(性)가운데 다만 인의예지 네 가지뿐이니 어찌 일찍이 효제(孝悌)가 있겠는가.

그러나 인(仁)을 행(行)하는 근본(根本)인 것이다. 인(仁)을 하는 데는 효제(孝悌)를 근본으로 삼으며 본성(本性)을 논한다며 인(仁)이 효제(孝悌)의 근본(根本)이 되는 것이다.

◇ 인생(人生)은 길이(長)가 아니라 가치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효도(孝道)는 오상(五常)의 근본(根本)이고 장수(長壽)의 비결이다.

◆ 신체발부는 수지부모하니 불감훼상이 효지시야요 입신행도하여 양명어후세하여 이현부모효지종야니라 부효는 시어사친이요 증어사군 증어입신이니라(身體髮膚는 受之父母하니 不敢毀傷이 孝之始也요 立身行道하여 揚名於後世하여 以顯父母 孝之終也니라 夫孝는 始於事親이요 中於事君 終於立身이니라.)

해설 : 신체(身體)와 발부(髮膚)는 父母에게서 받은 것이니, 감히 훼손(毀傷)하지 않는 것이 효의 처음(始)이고, 입신(立身)하여 도(道)를 행해서 후세에 이름을 날려 부모를 드러내는 것이 효(孝)의 끝이다.

◇ 입신(立身) : 학문(學問)을 닦고 심신(心身)을 수양(修養)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히 자신(自身)을 지킬 수 있는 인격(人格)의 완성을 이른다. 선(善)으로 자신을 지키는 것이다.

◇ 대체로 효(孝)는 오상(五常)의 근본(根本)이고 백행(百行)의 근원(根源)이니, 효(孝)하고서 불인(不仁)한자 있지 않고, 효(孝)하고서 불의(不義)한자 있지 않으며, 효(孝)하고서 무례(無禮)·무지(無智)·무신(無信)한자 있지 않다.

◆ 애친자는 불감오어인하고 경친자는 불감만어인하나니 애경을 진어사친하며 이덕교가어백성하여 형우사해하리니 개친자지효니라.(愛親者는 不敢惡於人하고 敬親者는 不敢慢於人하나니 愛敬을 盡於事親하며 而德教加於百姓하여 刑于四海하리니 蓋天子之孝니라.)

해설 : 아버이를 사랑(愛)하는 자(者)는 감히 남을 미워하지 않고, 아버이를 공경(恭敬)하는 자는 감히 남을 업신여기지 않으니, 아버이를 섬기는 데 사랑과 공경을 다하면 덕교(德教)가 백성들에게 미쳐서 사해(四方)에 본(本)보기가 될 것이니, 이는 대개 천자(天子)의 효이다.

◆ 맹의자 문효한대 자왈 무위니라(孟懿子 問孝한대 子曰 無違니라)  
맹의자(孟懿子)가 효(孝)를 묻자, 공자(孔子)께서 대답하셨다. “(禮) 어기지 말아야 한다.” 무위(無違)란 도리(道理)에 위배되지 않음을 말한다.

◆ 노래자효봉이친(老萊子孝奉二親 : 중국 춘추시대 사람) 춤을 추다. 《高士傳, 小學 稽古篇》

해설 : 노래자(老萊子)는 두 아버이를 효성(孝誠)으로 봉양(奉養)하였다. 그는 나이 70세에 아이들의 장난을 하여 몸에 오색 무늬의 옷을 입었으며, 일찍이 물을 떠가지고 당(堂)에 오르다가 거짚으로 넘어져 땅에 엎어져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를 냈으며, 새 새끼를 부모(父母) 곁에서 희롱하여, 부모(父母)를 기쁘게 하고자 하였다.

◆ 출필고(谷)하며 반필면하며 소유를 필유상하며 소습을 필유업하며 항언에 불칭노니라.  
(出必告(谷)하며 反必面하며 所遊를 必有常하며 所習을 必有業하며 恒言에 不稱老니라.)

해설 : 나갈 적에는 반드시 아뢰고, 돌아와서는 반드시 얼굴을 뵈며, 가는 곳을 반드시 일정함이 있게 하며, 익히는 바를 반드시 일삼는 것이 있게 하며, 평소 말할 때에 늙었다고 일컫지 않는다.

◆ 군자덕목(君子德目)

「자허원군 성유심문(紫虛元君 誠諭心文)」에 청렴(清廉)과 검소(儉素)에서 복(福)이 생기고, 겸손(謙遜)과 사양(辭讓)에서 덕(德)이 나고 마음을 고요히 하면 길이 트이고, 온화(溫和)한 성품(性品)에서 수명(壽命)을 얻고, 많은 욕심은 근심을 낳고, 탐욕(貪慾)이 많으면 재앙(災殃)을 부르고,

경망한 행동에 실수가 따르고, 어질지 못하면 죄를 짓나니, 남의 잘못을 보지 말며,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며, 마음은 탐하거나 성내지 말며, 몸은 악한 일에 따르지 말고, 옳지 못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며, 관계없는 일에 끼어들지 말고, 주인을 높이며 부모(父母)에게 효도(孝道) 하고, 어른을 공경(恭敬)하며, 덕(德)을 받들고, 어짐과 어리석음을 가리며, 무식을 용서하고, 순리로 오는 재물을 막지 말며, 떠난 재물 쫓지 말며, 몸이 허락지 않는 일을 바라지 말며, 지난 일을 생각지 말라. 슬기로움에도 어둠이 많고, 치밀한 계획에도 수월함을 잃는다. 남을 해하면, 나도 잃고 권세에 아첨하면 화가 따르니, 마음으로 경계(警戒)하고 의기로 지켜야 한다. 곧지 않으면 집이 망하고, 청렴(清廉)하지 않으면 지위(地位)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平生) 동안 경계(警戒)하기를 권하니, 생각해보라. 위에는 하늘이 굽어보고, 아래에서는 땅이 지켜보나니, 밝을 때는 법이 있어 다스리고, 어두울 때는 재앙(災殃)이 있어 따른다. 오직 바른 것을 지켜, 마음을 속이지 않을 것이다. 《明心寶鑑》

◆ 군신유의(君臣有義)하며 : 임금과 신하(現: 政府와 國民)는 의리(義理)가 있으며

◇ 명군신지의는(明君臣之義는) 범이십장(凡二十章) :

군신간(君臣間)의 의리(義理)를 밝힌 무릇 이십 장이다.

◇ 명군신지의요(明君臣之義요) 명사군지예요(明事君之禮요) 명위신지절이나라(明爲臣之節이나라) :

◇ 군신간의 의(義)를 밝혔고, 임금을 섬기는 예절을 밝혔고, 신하가 된 예절(禮節)을 밝혔다.

◇ 신하(臣下)와 군주(君主)는 의리(義理)로써 연결(連結)되었다.

◇ 現 정부(政府)와 국민(國民) 사이에는 의리(義理)를 지켜야 한다.

◇ 명사군신지예(明使君臣之禮)요 : 임금은 신하(臣下) 부리기를 예(禮)로써 함을 밝혔다.

◇ 신사군이충(臣事君 以忠)이니이다. : 신하(臣下)는 임금 섬기기를 충(忠)으로써 해야 한다.

◇ 신사군(臣事君) : 임금을 섬기되 그 몸을 바치며, 신하(臣下)와 군주(君主)는 의리(義理)로써 연결되었다.

◇ 임금을 섬김(事)에는 공경(恭敬)을 취하여 섬긴다.

◇ 자왈 사군진례(子曰 事君盡禮)면. : 공자가 말씀하셨다. “임금 섬김에 예(禮)를 다하여야 한다.”

◇ 임금을 섬김(事)에는 공경(恭敬)을 취하여 섬긴다.

◇ 군자는 유어의하고 소인유어이니라(君子 喻(깨우칠 유)於義하고 小人喻於 利나라)

군자(君子)는 의(義)에 깨닫고 소인(小人)은 이익(利益)에 깨닫는다.

◇ 신하(臣下)의 도(道)는 의(義)를 따른 것이지 임금(王)을 따른 것은 아니다

1) 의(義)란 천리(天理)의 마땅함이요, 이(利)란 인정(人情)의 하고자 하는 바이다.

2) 견의불위 무용야니라(見義不爲 無勇也니라.) :

의(義)를 보고 행하지 않음은 용맹이 없는 것이다.

3) 군자(君子)는 생명(生命)을 버리고라도 의(義)를 취(取)하고

4) 소인(小人)은 이익(利益)에 있어서와 같이 깨닫는다.

5) 견이사의의(見利思義): 이익(利益)을 보면 의리(義理)를 생각하라.

6) 신의(信義)가 있으면 백성들이 신임(信任)한다.

◇ 군자(君子)는 생명(生命)을 버리고라도 의(義)를 취(取)한다.

◆ 부부유별(智)(夫婦有別(智))하며 : 해설 : 지아비와 지어미는 분별이 있으며.

◇ 명부부지별은(明夫婦之別은) 범구장(凡九章)이라. :

해설 : 부부(夫婦)간의 분별(分別)을 밝힌 무릇 아홉 장이다.

◇ 부부는(夫婦는) 인윤지대강이요(人倫之大綱이요) :

해설 : 부부(夫婦)는 인윤(人倫)의 큰 근본이요

◇ 명부부지별이요 명혼인지예이요 명남녀지별요 명거취지예요 종즉이과부지자로 결지하니라  
(明夫婦之別이요 明婚姻之禮요 明男女之別이요 明去取之禮요 終則즉以寡婦之子로 結之하니라)

해설 : 부부(夫婦)의 분별(分別)을 밝힌 것이요, 혼인(婚姻)의 예(禮)를 밝힌 것이다. 남녀(男女)의 구별(區別))을 밝혔고, 버리고 취하는 뜻을 밝혔고, 끝에는 과부(寡婦)의 자식(子息)에 대한 것으로 맺었다.

◇ 그러나 부부(夫婦)는 천속(天屬: 천륜인(天倫人) 친속(親屬))이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다.

◇ 지(智) : 분별(分別)함과 인(仁)을 이롭게 한다.

◇ 옳고 그름을 구별(區別) 함이다.

◇ 인륜(人倫)의 가장 중요(重要)한 부분, 사물(事物)이 가장 중요(重要)한 줄거리다.

◇ 부부(夫婦)는 인윤(人倫)의 큰 근본(根本)이다.

◇ 지(지) : 분별(分別)함과 인(仁)을 이롭게 한다.

◇ 부부(夫婦)는 혼인(婚姻)의 예(禮)를 밝히고 남녀의 구별(區別)을 밝혔다.

◇ 남녀의 구별(區別)을 밝혔고, 버리고 취하는 뜻을 밝혔고, 끝에는 과부(寡婦)의 자식(子息)에 대한 것으로 맺었다.

◆ 삼십이유실하여 시리남사하며 박학무방하며 손(遜)우시지니라(三十而有室하여 始理男事하며 博學無方하며 孫(遜)友視志니라)

해설 : 서른 살이 되거든 아내를 두어 비로소 남자의 일을 다스리며, 널리 배워 일정한 곳이 없으며, 친구에게 공손(恭遜)히 하되 그의 뜻을 살핀다. 널리 배워 일정한 곳이 없어 오직 선(善)을 스승으로 삼고 벗에게 공손(恭遜)히 하되 뜻을 살펴 오직 선(善)을 취하여야 한다.

◆ 고자에 이십이가하고 삼십이취러니 후세에 반시하여 가취태조라 고로 민다요하고 미지위인부모지도이유자라 고로 교화불명하나니라(古者에 二十而嫁하고 三十而娶러니 後世에 反是하여 嫁娶太蚤(벼룩 조)라 故로 民多夭하고 未知爲人父母之道而有子라 故로 教化不明하나니라)

해설 : 옛날에는 20세에 시집가고 30세에 장가들었는데, 후세에는 이와 반대여서 시집가고 장가들기를 너무 일찍 하므로 백성들이 요절하는 자가 많고 사람의 부모(父母)된 도리(道理)를 알지도 못하면서 자식(子息)을 두므로 교화(教化)가 밝지 못한 것이다.

◆ 사마온공왈 범의혼인에 당선찰기서여부지성행과 급가법하여요 물구모기부귀니라 (司馬溫公曰 凡議婚姻에 當先察其婿與婦之性行과 及家法何與요 勿苟慕其富貴니라.) 《온공서의 : 소학가언》

◇ 사마온공(司馬溫公)이 말하였다. “무릇 혼인(婚姻)을 의논(議論)함에 마땅히 먼저 그 사위와 며느리의 성품(性品)과 행실(行實) 및 가법(家法)이 어떠한가를 살펴야 할 것이요, 다만 그 부귀(富貴)만을 흠모하지 말아야 한다.

증주 : 부가왈혼이요 서가왈인이라 구단야라.(婦家曰婚이요 婿家曰姻이라 苟但也라.)

해설 : 며느리의 집안을 혼(婚)이라 하고, 사위의 집안을 인(姻)이라 한다. 구(苟)는 다만이다.

집해 : 혼인지도는 불단택서부지덕이라 우수심기부조이래지가법야니라(婚姻之道는 不但擇婿婦之德이라 尤須審其父祖以來之家法也니라.)

해설 : 혼인(婚姻)의 도(道)는 다만 사위와 며느리의 덕(德)만을 가릴 뿐만 아니라, 더욱 모름지기 그 부조 이래의 가법(父祖 以來의 家法)을 살펴야한다.

◆ 빙즉위처요 분즉위첩이니라(聘則즉爲妻요 奔則즉爲妾이니라.)

해설 : 〈六禮를 갖추어〉 맞이하면 처(妻)가 되고 그냥 따라가면 첩(妾)이 된다.

집해 : 처지위언은 제야니 이례빙문이득여부적체야라 분은 추야라 첩지위언은 접야니 득접견 군자이부득항려야라 (妻之爲言은 齊也니 以禮聘問而得與夫敵體也라 奔은 趨也라 妾之爲言은 接也니 得接見 君子而不得抗儷也라)

해설 : 처(妻)란 말은 가지런하다는 뜻이니, 예(禮)로 빙문(聘問)하여 남편과 대등한 몸이 된 것이다. 분(奔)은 따라감이다. 첩(妾)이란 말은 접한다는 뜻이니, 군자(君子 : 남편)를 접견할 수는 있으나 대등한 짝(抗儷)은 될 수 없는 것이다.

◆ 예기왈 부혼례는 만세지시야라 취(娶)어이성은 소이부원후별야요 폐필성하며 사무불전은 고지이직신이니 신이 사인야며 신이 부덕야라. 일여지제하면 종신불개하나니 고로 부사불가니라

(禮記曰 夫昏禮는 萬世之始也라 取(娶)於異姓은 所以附遠厚別也요 幣必誠하며 辭無不腆은 告之以直信이니 信이 事人也며 信이 婦德也라. 一與之齊하면 終身不改하나니 故로 夫死不嫁니라.)

해설 : 「禮記예기」에 말하였다. “혼례(婚禮)는 만대의 시초이다. 이성(異性)에게 장가들클은 뉘를 가깝게 하고 분별(分別)을 후하게 하는 것이요, 폐백(幣帛)을 받듯이 정성스럽게 올리며 말을 후하지 않음이 없게 함은 곧음과 신(信)으로써 고함이니, 신(信)이 사람을 섬기며, 信이 부덕(婦德)이다. 한번 남편과 더불어 혼례(婚禮)를 올려 가지런히 하면 종신(終身)토록 고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남편(男便)이 죽어도 시집가지 않는다.

집성 : 취리성자는 소이의부소원지도요 후중분별지이라(取異姓者는 所以依附疏遠之道요 厚重分別之義라)

해설 : 이성(異性)을 취하는 것은 소원함을 의지하는 도(道)요, 분별(分別)을 후중(厚重)하게 하는 뜻이다.

◆ 부녀사덕(婦女四德)

「익지서(益智書)에 말하기를 여자에게 훌륭한 네 가지의 덕(德)이 있으니, 첫째는 부인(婦人)의 덕(德)이요, 둘째는 부인(婦人)의 말[言]이며, 셋째는 부인(婦人)의 용모(容貌)이고, 넷째는 부인(婦人)의 솜씨[工]이다.

부인의 덕(德)이란, 반드시 이름이 뛰어난 것이 아니요, 아름다움이란 반드시 얼굴이 예쁨이 아니요, 말씨란 반드시 입담 좋음이 아니며, 솜씨란 반드시 남보다 손재주 좋음이 아니다. 부인(婦人)의 덕(德)이란 마음은 맑고 곧으며, 아끼고 줄여 분수에 맞게 하고, 행실(行實)은 부끄러움을 알아 조심하며, 기거에 예절(禮節)이 있어야 하니 이것이 덕(德)이다.

아름다움이란 씻고 털어 의복(衣服)이 깨끗하며, 자주 목욕(沐浴)하여 몸에 더러움이 없음이니 이것이 부인(婦人)의 아름다움이다.

부인(婦人)의 말씨란 고운 말 가려 하여, 예(禮)가 아니면 말하지 않고 때를 가려 말해야 사람이 그 말을 싫어하지 않으니, 이것이 부인(婦人)의 말씨이다.

솜씨란 오직 바느질과 음식에 힘써 술대접만 즐겨말고, 깔끔하게 맛을 맞추어 손님을 받드는 것이니 이것이 부인(婦人)의 솜씨이다.

이 네 가지 덕(德)은 부인이 갖춰야 할 것이니 수월한 마음으로, 힘써 바르게 행(行)하는 것이 부인(婦人)의 길이라. 《명심보감》

◆ 장유유서(長幼有序)하며 :

해설 : 어른과 어린이(젊은이)는 차례가 있으며

◇ 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는 범이십장(凡二十章)이라 :

해설 : 장유간의 차례를 밝힌 것이 무릇 이십 장이다.

◇ 명장유지서(明長幼之序)요 :

해설 : 장유(長幼)간의 차례를 밝혔고, 《小學明倫》

◇ 장유유서(長幼有序) = 질서(秩序)다.

◆ 순명설(설)이교오교하시되 불알형제이왈장유자는 개이종족향당개유장언 이요 비단동기 이이일새니라(舜命契(설)以教五教하시되不曰兄弟而曰長幼者는 皆以宗族鄉黨皆有長焉이요 非但同氣而已일새니라.)

해설 : “순(舜)이 설(契)에게 명령하여 오교(五教)를 가르치게 하시면서 형제(兄弟)라고 말하지 않고 장유(長幼)를 말한 것은 종족(宗族)과 향당(鄉黨)에 모두 어른이 있고 다만 동기간(同氣間) 뿐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 이씨왈 수이장은 명경형지예요 차십팔장은 즉명범진퇴응대쇄소음식연사행좌지예야니라 (李氏曰 首二章은 明敬兄之禮요 次十八章은 則즉명凡進退應對灑掃飲食燕射行坐之禮也니라.)

해설 : 이씨(李氏)가 말하였다. “처음 두 장(章)은 형(兄)을 공경(恭敬)하는 예절을 밝혔고, 다음 열여덟 장(章)은 무릇 나아가고 물러나며 응(應)하고 대답하며 물부리고 쓸며 마시고 먹으며 연회(宴會)하고 할 쓰며 다니고 앉는 예절을 밝혔다.”

◆ 군자는 이문회우하고 이우보인이니라(君子는 以文會友하고 以友輔仁이니라.)

해설 : 군자(君子)는 글로써 벗을 모으고, 벗으로써 인(仁)을 돕는다.

◇ 예(禮) → 공경(恭敬)하고 사양(辭讓)하는 것을 근본(根本)으로 삼으며, 사랑(仁)과 화합(和合)과 배려하는 마음이 예(禮)다. 또한 예는 정직(正直), 신뢰(信賴), 존중(尊重), 소통(疏通), 협동(協同), 책임감.

◇ 예(禮)= 천지자연(天地自然)의 질서(秩序)다. 법질서가 무너지면 난(亂)세가 온다.

◇ 예(禮)= 질서 자연(秩序 自然)의 순리(順理: 道理)를 말한다.

◇ 예(禮)는 절도(節度)를 넘지 않으며, 남을 침해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으며, 친압하기를 앓는다.

◇ 예(禮) → 공경(恭敬)하고 사양(辭讓)하는 것을 근본(根本)으로 삼는다.

◆ 입어예하며(立於禮하며) : 예(禮)에 서며

◇ 예(禮) : 공경(恭敬)하고 사양(辭讓)하는 것으로 근본(根本)을 삼는다.

◇ 예(禮) : 재계(齋戒)할 줄 알아야 한다. 공경(恭敬)하다.

◇ 엄숙(嚴肅)하다. 공손(恭遜)하고 삼가 할 줄 알아야 한다.

◇ 인(仁) : 본성(本性)이요, 효제(孝弟)는 용(用)이다.

해설 : 성(性)가운데 다만 인의예지(仁義禮智) 네 가지뿐이니 어찌 일찍이 효제(孝弟)가 있겠는가. 그러나 인(仁)을 사랑을 주장하고 사랑은 아버지를 사랑한 것 보다 더 큰 것이 없다.

◆ 맹자의 유달존삼이니(孟子의 有達尊三이니)

◇ 天下에 유달존(有達尊)이 삼이니 : 爵一(벼슬), 齒一(나이), 德一(덕)이니 天下에 누구에게나 높이 인정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으니, 관직(官職)이 그 중 하나이고, 나이가 하나이고, 덕(德)이 하나이다.

◇ 조정 막여작(朝廷엔 莫如爵이요.)

조정에서는 직위를 숭상하고.(조직 사회에서는 직급을 최우선으로 한다.)

◇ 향당엔 막여치요(鄉黨엔 莫如齒요)

향리(鄉里)에서는 윗사람을 존경(尊敬)하고.(일반 사회에서는 나이를 최우선으로 한다.)

◇ 보세장민엔 막여 덕이요 오득유기일하니 이만기이재리오(輔世長民엔 莫如 德이요. 惡得有其一 하니 以慢其二哉리오.)

해설 : 세상을 돕고 백성을 평안하게(자라게 하는 데는) 하는 데는 학문(學問)과 덕(德)을 존중(尊重)해야 한다. 나라 일을 잘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는 덕(德)만한 것이 없으니, 어찌 그 한 가지(관직)를 소유하고서 둘(나이와 덕)을 가진 사람을 업신여길 수 있겠는가?

※ 덕(德)= 몸을 윤택(潤澤)하게 하니, 덕(德)이 있으면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퍼진다. 그러므로 君子는 반드시 그 뜻을 성실(誠實)히 하는 것이다.

◆ 유자왈 기위인야효제오 이호범상자선의니 불호범상이요 이호작란자 미지유야니라(有子曰 其爲人也孝弟오 而好犯上者鮮矣니 不好犯上이요 而好作亂者未之有也니라.)

해설 : 유자(有子)가 말하였다. “그 사람됨이 孝하고, 공경(恭敬)스럽고서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는 자는 드무니, 윗사람을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고서 난(亂)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는 있지 않다.

◇ 유자(有子)는 공자(孔子)의 제자이니, 이름은 약(若)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을 효(孝)라 하고, 형(兄)과 어른을 잘 섬기는 것을 제(弟)라 한다. 범상(犯上)이란 윗자리에 있는 사람을 범함을 이른다. 선(鮮)은 적음이다. 작란(作亂)이란 패역(悖逆)하고 다투고 싸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이 부모에게 효(孝)하고 어른에게 공경(恭敬)하면 그 마음이 화순(和順)해서 윗사람을 범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가 적으니, 반드시 란(亂)을 일으키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다.

◆ 삼대지학이 개소이명인윤야니 능시사자면 칙어인윤후의니 학지위도하이가차리오 (三代之學이  
皆所以明人倫也니 能是四者면 則於人倫厚矣니 學之爲道何以加此리오)

해설 : 삼대(三代)의 학문(學問)은 모두 인윤(人倫)을 밝힌 것이었으니 이 네 가지에 능(能)한다면 인윤(人倫)에  
두터우니(厚) 배우는 도(道)가 어찌 이보다 더할 것이 있겠는가.

◆ 삼대지소이직도이행야라(三代之所以直道而行也라.)

삼대시대에 정직(正直)한 도(道)로 행(行)해 왔기 때문이다.

◆ 봉우유신(朋友有信)이니라 : 봉우(朋友) 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 명봉우지교(明朋友之交)니라 : 봉우간의 사귀음을 밝혔다.

◇ 明朋友之交는 凡二十章이다 : 봉우간의 사귀음을 밝힌 무릇 이 십장이다.

◇ 일기봉우하면 불신여해(一欺朋友, 不信如海)니라

한 번이라도 친구를 속이면 믿지 못함이 바다와 같다.

◇ 여봉우교(與朋友交)하되 언이유신(言而有信)이면 : 친구와 사귀되 말함에 성실(誠實)함이  
있으면(있어야 하며) 비록 배우지 않았다고 말하더라도 나는 반드시 그를 배웠다고 이르겠다.

◇ 여봉우교이불신호아(與朋友交而不信乎아) :

해설 : 봉우(朋友)와 더불어 사귀되 성실(誠實)하지 못한가?

◇ 신의(信義)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 신(信) : 사람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믿음으로써 해야 한다.

◇ 신(信)이 봉우(朋友)와 더불어 사귀되 말함에 있어 신실(信實)함이 있어야 한다.

◇ 언이유신이면(言而有信이면) : 말함에 성실함이 있어야 하며

◇ 언필신하며(言必信하며) :

말을 반드시 미덥게 하고 자기(自己) 마음을 다하는 것을 충(忠)이라 한다.

◇ 군자(君子)는 글로써 벼를 모으고, 벼으로써 인(仁)을 돕는다.

◇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학문(學問)을 강(講)하여 벼를 모으면 도(道)가 더욱 밝아지고,  
선(善)을 취하여 仁을 도우면 덕(德)이 날로 진전된다.

◆ 주자왈. 인지대륜이 유오하니 성현개이위천지소서라 연금고지컨대 유부자형제. 위천속이요  
이이인합자삼언이라 연부부자는 천속지소유이속자야요 군신자는 천속지소뢰이전자야요  
지약봉우자하여 칙천속지소뢰이취정자야라. 고로 육군신부자형제부부지간에 교진기도이무패인대  
비유봉우이책기선, 보기인이면 기숙능사지연재아 고봉우지어인륜에 기세약경이소격위심중하고  
기분약소이소관위지친하고 기명약소이소직위심대하니 차는 고지성인이 수도입교에  
소이필중어차하여 이불감태야시니라(朱子曰. 人之大倫이 有五하니 聖賢皆以爲天之所叙라

然今考之컨대 惟父子兄弟. 爲天屬이요 而以人合者三焉이라 然夫婦者는 天屬之所由以續者也요 君臣者는 天屬之所賴以全者也요 至若朋友者하여 則天屬之所賴以取正者也라. 故로 欲君臣父子兄弟夫婦之間에 交盡其道而無悖인대 非有朋友以責其善, 輔其仁이면 其孰能使之然哉아 故朋友之於人倫에 其勢若輕而所擊爲甚重하고 其分若疎而所關爲至親하고 其名若小而小職爲甚大하니 此는 古之聖人이 修道立教에 所以必重於此하여 而不敢怠也시니라.)  
 〈小學集註 總目〉

해설 : 주자(朱子)가 말씀하였다. “사람에게 큰 윤리(倫理) 다섯 가지가 있는데 성현(聖賢)이 모두 하늘이 편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살펴보면, 오직 부자(父子)와 형제(兄弟)만이 천륜인(天倫人) 친속(親屬)이고, 타인으로서 합한 것이 세 가지이다. 그러나 부부(夫婦)는 천속(天屬 : 天倫人 親屬)이 말미암아 이어지는 것이고 군신(君臣)은 천속(天屬)이 의뢰하여 온전하게 되는 것이며, 봉우(朋友)로 말하면 천속(天屬)이 의뢰하여 바름을 취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신(君臣)·부자(父子)·형제(兄弟)·부부(夫婦)사이에 서로 그 도리(道理)를 다하여 어긋남이 없고자 한다면 봉우로써 그 선(善)을 책하고 그 인(仁)을 돕지 않고서는 그 누가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봉우가 인륜에 있어 그 형세가 가벼운 듯하나 관계된 바가 매우 중(重)하고, 그 정분이 소원한 듯하나 관계된 바가 지극히 친밀하며, 그 이름이 작으듯하나 맡은 바가 매우 크니, 이는 옛날 성인이 도를 말하고 가르침을 세움에 반드시 이를 중히 여겨 감(敢)히 태만히 하지 않았던 이유이다.

상. 오교지목이니라(上. 五教之目이니라) : 위는 오교의 조목 이니라. 《소학·맹자·서전》



## 무드리 문예마당

### 방언대회 대상 수상작

- 어매, 아버지 망태사랑 이야기 \_ 김인자

### 한기 \_ 정득채 외 25명

### 수필

- 신안군 관광 명소인 반월도 박지도를 문화탐방으로 다녀와서 \_ 고창옥
- 왕비천 이야기 \_ 위무량
- 환경호르몬 \_ 배병수
- 풍영정 \_ 오충자

제2회 전라도 사투리(방언) 말하기 대회 대상 수상작  
어매, 아버지 망태사랑 이야기



김인자



시집을 샀는디라 시어매가 ‘아가! 느그 아버지하고 죽어라고 농사 지어봤자 니가 번놈만 못형께 기냥 니가 직장에 댕겨라’ 혀서 편히 직장에 댕길라고 시집에 엮어살았어라우~

근디 한 날은 시아버지가 연락도 읍이 집에 안들어오셔갖고 새벽에 생난리가 났당께요.

난중에 알았는디 시상에나 집안에서는 고로코롬 점잖은 시아버지가 베깔에만 나가면 이집 저집 댕김서 술을 겁나 자셔불고 암디서나 지무셔 분다고 안혀요.

고런 시아버지 베깔에 못 나가게 헐라고 시어매가 아버지 고무신을 깔고 안겨서 집안일을 허는디라- 급허게 치간에 간다든지 장짱에라도 가면 고새에 신을 치켜들고 담박꿀로 고삿으로 내배분당께요.

그라면 암도 못 찾아부요. 지다려야제.

오밤중 기별오면 어째 신랑이 어매하고 리아까 꺾고가서 모셔오지라.

근디 지가 아즉은 새각신디 신랑이 먼디로 발령이 나부렀당께요.

그러서 걸핏하면 거시기허게 술취헌 아버지를 신랑이 없응께 오밤중에 저테 사람덜 울~력까지 혀서라 리아까에 태워갖고 시어매는 앞에서 끌고 지는 뒤에서 밀고 집에까지 왔지라우.

한번은 나가 애 배갖고 산달이 가차와 놀땀디, 하도 심심혀서 시장간 시어매 마중을 나갔지라-.

근디~ 찌그서 아버지가 자전차타고 오시길래~ “아버지” 부름시롱 손을 흔들었더니만 아 아버지가 취하셨는지 갑자기 갈치자로 삐틀삐틀 허더니만 앞으로 꼬꾸라짐서 꼬랑창으로 빠져부요.

가차이 가서봉께 시상에나 꾸정물을 뒤집어 쓴 아버지가 꼬랑창에서 일어서다 자부러지고 또 자부러지고 헨디라- 어짜스까이 암도 없는디 나밖에 없는디

혈수가 없싱게 혼자 포도시 꼬집어땡기다가 빠져서 지도 낮바닥까지 든지럽게 개호랭이 되부렀당께요,

고날 아버지 시어매한테 욱 직살나게 얻어묵어부렀소.

근디 다른 날은 말술을 자시고도 아침상은 받으시는디~

아 고날은 갱신도 못 하시길레 병원으로 모시고 갔지라우.

으사선상님이 “인자 술 자시믄 돌아가시오이.” 형께 시상에나~ 우리 시어매가 신 폼치고 옷 폼치고 별짓을 다혀도 못 끊던 술을 거즌말맹키로 단박에 딱 끊어블테요.

고때부터 술은 입도 안 대고라 “임자 고놈의 술 따시 욱봤소” 그럼시롱 아~정제에서라- 귀영도 쳐주고 머시기 살강정리까지 혀준당께요.

넘들은 황혼이혼도 현다는디 우리 어매 아버지는 늘그막에 빠끔살이 허듯 오순도순 망태사랑 험시로 참말로 오지게 사셨어라우.



## 無等山秋景

여기에 실린 漢詩는 한시회 광주서림음사(光州瑞林吟社) 회원들의 작품이다.

광주서림음사는 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회원은 26명으로 1972년 8월 5일 광주시 계림동 수성노인당에서 수계 창립 서림음사로 발족하여 매월 25일 정기 아회일로 정하여 매월 아회를 개최, 한시의 근본 중핵인 동양 시문학의 모체이며 순수한 인간 본연의 지정의 혼백 경지를 최고로 표현하고 묘사 시킨 사상을 계절 순환과 변모 상황의 가경에 따라 삼라만상의 변화 조성된 기려 묘경을 자연법칙과 순리를 획득 감상하며 생활 주변에서 각종행사를 비롯하여 윤리, 이념구현, 실천행사와 축하 추모 제사 등에 경성 제시로 시지 17집을 제작 배부하여 한시 문화창달이 일익 발전 하였으며 會長 湖亭 李德在, 副會長 松下 文承烈, 總務 松隱 任昌奎이다.

한시 창작활동에 일취월장하여 광주에서 제일 우수한 한시 모임을 추진하고 있다.

# 無等山秋景

松下 文承烈

國立公園 拭眼瞻

국립공원인 무등산 눈을 닦고 바라보니

千紅萬紫 美花添

울긋불긋 고운 단풍에 미화를 더했네

南鋪若昔 頻吹爽

남쪽바람 옛날 같이 자주불어 시원하고

西氣而今 漸退炎

서쪽기운 지금에야 흑염 점차 물러 갔네

松頂風翻 知鶴起

송정에 바람이 불면 학이 알고 일어나며

塘心月照 見魚潛

못 중심에 달 비치니 고기 잠적함을 보네

光陰變化 蟲聲歇

세월이 흘러가니 벌레 소리가 뜸하고

野外探光 使我恬

야외 탐광하니 나로 하여금 편안케 하네

# 無等山秋景

素巖 金容淑

湖南屈指 泰山瞻

호남 굴지의 태산을 우러러보니

無等祥雲 繞美添

무등 정상에 상운이 둘러 있어 아름다움 더하네

春季青芽 爭早綻

봄에는 푸른 싹 다투어 일찍 피고

秋期紅葉 競先炎

추기에는 붉은 잎 경쟁하여 먼저 붉었네

多蜚唧唧 鳴蕙遁

많은 귀뚜라미 즉즉하며 풀속에 숨어서 울고

衆雁噉噉 越嶺潛

떼 기러기 웅웅 거리며 고개 넘어서 잠기네

白荻丹楓 調和艷

흰 갈대 붉은 단풍 조화되어 고우니

風光醉客 不歸恬

무등산 풍광에 취한 관광객 편안히 돌아가지 못하네

# 無等山秋景

萬年齊 安棟周

瑞石山高 處處瞻

높은 무등산 곳곳을 바라보니

目前秀麗 景秋添

눈앞에 펼쳐진 가을 경치 아름다움 더하네

蘆花作海 風浪溢

갈대 꽃 바닷 바람에 풍랑 일고

列岵成屏 日抱炎

열지어진 바위 병풍 햇살을 안고 있네

息影騷人 登逸樂

식영정에는 소인들 시 읊으며 즐기고

錦溪賞客 世塵潛

광주천 구경꾼들 세상 티끌 잠기네

蒼黃赤葉 鮮妍態

푸른 노랑 빨강 잎 고운 모습이고

滿喫清遊 意自恬

좋은 놀이 만끽하니 마음이 스스로 편안하네

# 無等山秋景

云絲 柳和善

蘆花山色 白雲瞻

갈대 꽃 산 빛이 흰구름 우러러 보고

秋樹催丹 玉露添

가을 나무 단풍 재촉 옥로가 첨가하네

瑞石登程 同進退

서석대 등정하며 진퇴를 함께하고

中峰休息 除餘炎

중봉에서 휴식하며 남는 더위 떨었네

巖間落水 青苔養

바위 사이 젖은 물에 푸른 이끼 길러지고

無等紛紜 暗黑潛

어수선한 암흑이 무등산에 잠겼네

塵世四時 包容物

사시절 티끌과 만물을 포용하니

皆人此處 洗風恬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바람에 씻어 편안하네

# 無等山秋景

誠齊 朴東申

瑞石登臨 四顧瞻

서석대 올라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旻天開豁 眼前瞻

가을 하늘 활짝 열려 눈 눈앞에 더 해지네

丹楓燦爛 探風景

단풍이 찬란하여 풍경을 탐색하고

白荻婆娑 却暑炎

억새가 춤을 추니 삼복더위 물러가네

清晏小春 童子進

해안하청 시월에 동자는 진행하고

雅遊佳節 老夫潛

풍아선유 가절에 노부는 잠행하네

半空野鶴 頻頻頡

중천에 두루미가 자주 오르내리는데

徒伴逍遙 對話恬

도반들이 소요하며 대화가 편안하네

# 無等山秋景

學松 宋泰鍾

無山秋景 路邊瞻

무등산 가을경치 길에서 바라보니

登頂當時 想念添

정상 올랐을 때 생각이 많이 나네

藏佛峙頭 生活氣

장불재 머리에서 호기가 생겼고

證心溪谷 散蒸炎

증심 계곡에서 더움이 사라졌네

清風遠近 千情起

청풍은 원근에서 정다움을 일으키고

楓葉紅黃 萬感潛

단풍은 홍황으로 감흥에 잠겨있네

鼯鼠奔馳 尤別樂

다람쥐 분주함은 특별한 즐거움이요

老翁數訪 得安恬

늙은이 자주 찾아 편안함을 얻네

# 無等山秋景

秋岡 吳桴植

無等巍巍 矯首瞻

무등산 의외하여 고개 들어 바라보니

三王竝列 白雲添

병열한 삼왕봉에는 흰구름이 곁들어 있네

圭峰降靄 催紅葉

규봉암에 내린 서리 단풍을 재촉하고

長佛飄風 掃老炎

장불재의 살랑바람 늦더위 쓸어가네

接石先人 揮筆寫

석대를 만난 선인들은 붓을 들어 묘사했고

仰巖後者 失魂潛

바위를 보는 후인들은 넋을 잃고 빠졌네

市街抱擁 裕寬母

시가를 품어 안은 관후한 어머니인데

尋訪隨時 休息恬

수시로 찾아가서 편히 휴식하는 곳이네

# 無等山秋景

靑松 文鎬載

無山玉露 霜楓瞻

무등산 옥로 내려 서리 맞은 단풍 바라보며

瑞石煙霞 旭霧添

서석대 산수경치 더하니 아침 안개 사라지네

騷客蘆花 秋感爽

시인은 갈대꽃을 보며 가을 시원함을 느끼고

風絲稻穗 熟消炎

산들바람 벼이삭 익어가며 더위는 사라지네

江汀羽鶴 松孤遠

강가에 학 깃털 세우고 멀리 소나무에 앉고

雁行天雲 影動潛

기러기 날아 구름 사이 그림자 움직여 숨네

佳景人波 涼蔭樂

좋은 경치 사람들은 시원한 그늘에서 즐기고

豪遊樹澗 座談恬

호유들은 나무 물가 앉아 이야기하며 편히 쉬네

# 梧鳳米壽次韻

松下 文承烈

梧翁米壽 鶴龜年

오봉선생 팔십 팔세로 학과 거북이 해이니

教育成功 意豁然

교육에 공을 세워 뜻이 환해 시원하네

賢胤傾誠 施惠續

어진 자손들 정성 다해 시혜를 이어가고

賓朋賀禮 德仁連

벗님들 하례 하는 덕인이 연했네

潔身立正 齊家篤

몸 깨끗이 정의를 세워 제가가 돈독하고

守道扶綱 戒世全

도를 지켜 강상을 세우니 계세가 온전하네

累積善行 稱頌裏

오래 쌓은 선행으로 칭송 자자한 가운데

華三箕五 泰平宣

수복 다남을 축하하니 태평함을 베푸네

# 梧鳳米壽次韻

素巖 金容淑

慶祝梧翁 米壽年

경축해요 오봉의 미수년을 맞아

南星瑞氣 滿堂然

남성의 서기가 집안에 가득하리라

曾時學海 高才養

일찍이 학해에서 고재를 양성하시고

晚境騷壇 大蹟連

늦으막에 시단에서 큰 자취를 남겨 연하였네

琪樹開花 家運盛

기수에 꽃이 피니 가운이 왕성하고

瓊枝結實 子孫全

경지에 결실하듯 자손이 온전히 대성하였네

祖先顯赫 精誠盡

선조 높이 들어내어 빛나게 정성 다했으니

偕老安康 享福宣

두분 해로 안강하시고 오복 퍼서 누리시기 바리네

# 梧鳳米壽次韻

萬年齊 安棟周

布德施仁 米壽年

덕과 어짐을 베푸는 미수의 해에

鄭翁慶福 自然然

정옹의 경사 복은 자연스럽네

重任社長 多稱頌

음사사장을 맡음은 많은 칭송을 받고

上位儒宮 可道連

유궁의 고위직 도에 이어지네

稟性過和 垂範燦

품성은 온화하여 모범이고

用心正直 至誠全

정직하게 마음 씀은 지성을 다하네

精神奉仕 寄與大

봉사정신 기여함이 크며

遺業高堂 永世宣

남는 업적 고당에 영세토록 베푸네

# 梧鳳米壽次韻

云絲 柳和善

光陰米壽 感懷年

미수년 세월에 감회하는 해이고

往事精神 考察然

지난날을 고찰하는 정신이 당연하네

後學養成 勤續持

후학양성 오랜 세월이 지속되고

高談雅會 倣先連

아회에 고담은 선현의 본을 이었네

著名膝下 清廉裏

슬하에 저명하여 청렴속에

梧鳳相倫 潛樂全

오봉의 상륜과 잠락이 온전했네

瑞社諸賢 傳統約

서림음사 제현의 전통을 약속하고

愛鄉玉果 併登宣

애향의 옥과 현에서 나란히 오르며 베푸네

# 次梧鳳鄭得采米壽韻

誠齊 朴東申

居齊迅駛 不知年

세월이 빨리 달려 햇수를 알 수 없지만

已過風霜 普晏然

세사의 고난 이미 지나 두루 편안하여

誦讀詩書 朝夕續

시서의 송독에는 조석으로 계속되고

清遊禮樂 昨今連

예악의 청류에는 작금으로 이어지며

藍田玉樹 齊家篤

남전에 옥수번성 제가에 독실하고

祕苑金蘭 處世全

비원에 금난지교 처세에 온전하였네

隱谷暗香 浮動裏

은곡에서 그윽한 향기 떠도는 가운데

交流麗澤 德弘宣

여택에서 교류로 덕을 크게 베푸네

# 梧鳳米壽次韻

學松 宋泰鍾

梧鳳先生 米壽年

오봉 선생께서 미수를 당했으니

施仁德積 福多然

어진 마음 덕을 쌓아 복 또한 많았네

雄心客地 宦成歷

웅장한 마음으로 객지에서 관직을 하고

遠志鄉村 訓育連

먼 뜻을 품고 고향에서 훈육을 했네

奉侍齊家 無行忽

부모 모신 가정사에 소홀함이 없고

春花秋露 有尋全

사시사철 온전함을 찾고 있었네

詩壇引導 常推仰

시단을 이끌며 추앙받고 있으니

碩學來來 後學宣

밝은 학문 오래도록 후학을 펴소서

# 梧鳳米壽原韻

梧鳳 鄭得采

賤齒於焉 米壽年

천한 내 나이 어언 간에 팔십팔세 해이고

追思往蹟 感懷然

지난 발자취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네

靑時客地 風霜歷

젊어서 객지에서 온갖 고생을 겪었고

老境歸鄉 雨雪連

노경에 고향에 돌아오니 어려움이 많아라

怙恃居存 無盡孝

부모님 생전에 효도 다 하지 못하고

箇儂處世 莫行全

세상을 살면서 행실이 온전치 못 했네

詩壇瑞社 先賢效

서림음사 시단에서 선현을 본 받았으나

淺學殘才 德不宣

배우지 못하고 재주 없어 덕을 베풀지 못했네

# 梧鳳米壽次韻

靑松 文鎬載

梧翁健壯 未秋年

오봉 선생 건강하게 미수년을 맞이하여

過跡追思 感慕然

지난 발자취 생각하니 느낌 감회 그대로이네

客苦靑時 勤實至

객고하며 젊은 시절 근실함이 지극했고

歸來老境 勞心連

집에 돌아와 노경에 수고로움이 이어졌네

親居孝敬 虛無盡

살아생전 아버지께 허무하게 효도 못했고

舒善誠信 佞不全

선을 펴서 믿음마음 냉불함이 온전했네

詩壇參和 賢俊振

시단에 화합하여 남보다 뛰어난 떨치고

仁柔學德 正行宣

인유로써 학식과 덕행 정행을 베풀네

# 梧鳳米壽次韻

盱海 申東珠

鄭公米壽 喜迎年

정공의 미수 기쁜 해를 맞이하니

天賦寬仁 誕自然

천성적으로 관인함 자연스러움을 타고났네

故洞芳隣 充拊舞

옛 마을의 향기이웃 손벽치며 즐기니

滿庭寶樹 茂才連

뜰에는 자손들의 재주가 넘치네

文儒蔭德 功勳秀

문유의 음덕으로 공훈이 빼어나고

雅士精神 節操全

바른 선비정신 절조가 온전했네

玉果幽居 心不俗

옥과에 유거하며 마음도 속됨이 없으니

生涯至善 美風宣

한평생을 지극한 선으로 미풍을 떨치네

# 梧鳳米壽次韻

秋岡 吳桴植

言至鄭翁 米壽年

정선생께서 미수의 해가 되었다고 하니

心身健康 迓當然

심신이 건강하여 당연히 맞아 드리네

精神活動 知天泳

정신활동은 지천명에서 놀고

體力機能 耳順連

체력기능은 이순과 연하였네

學問研修 馴弟正

학문연수로 제자들 바르게 길렀고

所生傑出 御家全

자녀 걸출하니 가정은 온전했네

文章趣味 晚期樂

문장에 취미가 있어 만년을 즐기시고

奉仕鄉隣 懿德宣

향린에 봉사하여 의덕을 베푸네

# 梧鳳米壽次韻

時隱 蘇秉昶

梧翁米壽 迓今年

오봉 노인 미수를 금년에 맞으니

呈瑞南星 照燦然

정서남성 조찬연

孝子賢孫 誠孝盡

효자 현손들의 성효를 다하고

詩人墨客 賀詩連

시인과 묵객들의 축하시가 이어지네

齊家大小 經綸備

제가에는 대소간에 경륜을 갖추었고

處世方圓 叡智全

처세 방원함은 예지가 온전 함이네

學海投身 功績耿

학계에 투신하여 공적이 빛나고

生平德業 世間宣

평생 동안 덕업을 세간에 선양하였네

# 梧鳳米壽次韻

海月 朴基承

梧老今迎 米壽年

오봉선생 이제 맞이하는 미수년에

南星精彩 永昭然

남천 노인별의 정채가 길이 밝게 비취 주네

谷城瑞氣 高堂續

곡성의 상서로운 기는 고당에 이어지고

玉果淸風 四野連

옥과의 맑은 바람은 사방에 이어지네

磨琢詩書 聖意篤

시서를 마탁하는 성의가 돈독하고

講論道學 素心全

도학을 강론하는 소심이 온전 하구려

英才教育 無雙傳

영재들을 교육한 둘도 없는 스승이고

偉業名聲 世上宣

위대한 업적과 명성 세상에 선양하네

## 梧鳳米壽次韻

湖亭 崔炳鶴

先生米壽 到今年

오봉선생 미수는 금년에 이르렀고

訓路曾從 性本然

훈로를 일찍이 따름은 성품 본연이네

肖子賢孫 和色滿

어진 아들 훌륭한 손자 화색이 가득하고

高朋名士 賀聲然

높은 친구 이름난 선비 축하소리 이어지네

桑蓬壯志 經綸篤

상봉과 장한 뜻에 경륜이 두텁고

詩禮青氈 德業全

시례와 푸른 담요에 덕업이 온전하네

行績輝光 誰不頌

선생이 행적이 빛나니 누가 칭송치 않을까

河東古閥 永垂宣

하동정씨 옛 문벌은 기리 드리워 선양하네

## 梧鳳米壽次韻

秀松 蔡康錫

梧翁米壽 置今年

오봉선생의 미수는 금년에 당하여

積善家門 慶自然

적선하는 가문에 경사는 자연스럽네

孝子殫誠 無限續

효도하는 자손정성 다함이 무한이 이어지고

嘉賓祝福 不煙連

아름다운 손님 복을 비는 것은 분연히 연했네

儒林出入 綱常守

유림사회에 출입하여 강상을 지키고

雲裔提斯 禮義全

많은 자손들 제사하여 예의가 온전했네

不老長生 超俗世

늙지 않고 오래 사니 속세를 초월했고

芳名燦爛 詠詩宣

꽃다운 이름 찬란하니 시 읊어 선양하네

# 梧鳳米壽原韻

蘇仙永

梧鳳紅顏 米壽年

오봉 선생이 흥안으로 미수가 되는 해에

心身康健 每欣然

마음과 몸이 강건하여 매양 흥연하네

獻杯孝子 傾誠篤

효자는 헌수 잔에 정성을 돈독히 기울리고

爲祝嘉賓 讚善連

아름다운 손님 축하위해 찬선이 이어지네

積德鄉村 專力盡

향촌에 적덕함에 오로지 힘을 다하고

施仁訓路 至功全

교육계에 어짐 베풀어 지극한 공이 온전했네

瑞林詠社 繁榮裏

서림음사 회장으로 번영되는 속에

餘慶津津 萬古宣

남는 경사 진진하여 만고에 선양하네

# 梧鳳米壽次韻

群山 李在玉

河東古宅 慶回年

하동정씨 고택에 경사가 돌아오는 해에

學德梧翁 燦爛然

오봉 선생의 학덕은 찬란하게 빛나네

教育英才 稱頌繼

영재를 교육하여 칭송이 이어지고

復興斯道 讚辭然

사도를 부흥시켜서 찬사가 연하였네

美哉名閥 孝誠厚

아름답다 명벌에 효성이 두터우니

弘毅德門 忠義全

크고 굳세도다 덕문에 충의가 온전했네

詩禮箕述 模範裏

시례와 기구가 모범인 가운데에

子孫蕃盛 永綿宣

자손들이 번성하여 길이 이어 선양하네

# 梧鳳米壽次韻

春溪 柳晏重

梧老今當 米壽年

오봉선생 이제 팔팔 미수년을 맞이하니

高齡氣體 尙靑然

고령에도 기운이 육체가 오히려 청년이시네

麟孫鳳子 班衣舞

기린 같은 손자 봉 같은 아들 채색 옷으로 춤을 추고

來客兄弟 恭賀連

오신 손님 형제들 공손하게 축하가 이어지네

學界育英 三樂得

학계에선 육영사업 펼쳐 삼락의 즐거움 얻었고

儒宮衛道 五常全

유림계에서 우리도 옹위하여 오상이 온전했네

河東華閥 千秋赫

하동정씨의 빛난 문벌 천고에 빛나니

福祿亨通 萬代宣

복록이 형통하여 만대토록 베풀 지니라

# 次梧鳳米壽韻

靑潭 閔永順

玲瓏極宿 曜南天

영롱한 남극성이 하늘에 빛나는데

米耄於焉 值耆年

어언 간에 미수 해를 맞았네

滿榻春風 非孝士

자리에 가득한 봄 바람은 효선비가 아니고

偕床和氣 壽康全

함께 앉은 자리 온화 기운은 건강이 온전하네

芝蘭爛漫 方于里

지란은爛漫하게 고향에 실고

溫偕同鳴 樂二仙

함께 음성은 즐거운 두 신선이네

經究加加 來賀祝

지나온 길 오는 축하이고

聊知世德 福家傳

세덕을 알겠고 복 있는 집안을 전하네

# 신안군 관광 명소인 반월도 박지도를 문화탐방으로 다녀와서



고창옥  
북구문화원 회원



2022년 6월 18일 고정임 단장이 이끄는 관광버스에 몸을 실었다. 45명 정원을 가득 메운 관광버스로 1004섬을 방문한다는 설렘으로 가슴이 뿌듯하였다. 도착한 곳은 전남 신안군 안좌면 소곡두리길 257-35 신안군 안좌면 퍼플섬 매표소 주차장이었다. 여기서 반월도 박지도가 눈앞에 전개된다.



반월도 박지도를 소개하면 Purple Island(퍼플 아일랜드: 자주빛 섬)는 참 도라지(왕도라지) 및 콜라비 재배와 들녘에 만개한 꿀풀 등에서 착안했다고 하고 2015년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되어 섬 재생 사업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퍼플교는 박지마을에서 평생 살아온 김매금 할머니의 "걸어서 섬을 건너고 싶다"는 소망을 담아 만든 2007년 소망의 다리에서 시작 되었다고 한다. 퍼플교를 중심으로 갯벌과 트레킹 코스를 체험하고 자연을 즐기며 편히 쉬어갈 수 있는 퍼플섬 보라색으로 마련되었다. 목교와 마을 지붕, 창문 테두리, 커피잔까지 짙고 연한 보라색으로 마련되었다. 또한, 반월도는 섬의 형태가 반달 모양으로 보여 반월도라 하고 백여명의 주민들이 살고, 박지도는 섬의 지형이 박 모양이라 하여 박지도, 바기섬 또는 배기섬이라 불리고 서른명 남짓 살아요로 표현이 된다.

신안군이 의욕적으로 반월도 박지도를 관광마을로 가꾸어서 2021년 SRT 최고의 여행지, 어워드 최고 여행지로 선정되었고, 2021년 한국 관광별 본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으며 2021년 UN WTO(유엔세계관광기구) 세계 최우수 관광마을 선정으로 신안군의 보배로운 섬이며 한국에 최우수 관광마을로써 세계 관광마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런 곳을 찾았다는 것이 대단히 의미가 있고 진짜 한번 가고 싶은 섬이었다. 필자는 매표소에 들었으나 일반인은 입장료가 5,000원이지만 경로우대자는 무료로 입장하였다.

입장을 마치고 먼저 퍼플교(두리~박지) 1차구간 547m를 걷기 시작하여 가보니 다리가 전부 목교 테크로 된 100% 자주색으로 단장되어 있고 도착된 박지도 선착장을 가보니 선착장과 배들도 모두 자주색이고 주차된 차도 자주색으로 장식되었고 선착장 주변 건물도 자주색으로 되어 있어 자주색의 천국이다. 한 할머니의 소망이 이렇게 관광자원이 되었다는 것이 대견스럽다.

도로변 박지 모형의 조형물에서 관광객들의 기념 촬영이 한창이었다. 1구간을 마치고 박지도 산언덕에 900년의 우물이 있다고 하여 찾으려고 30여분을 헤매었으나 찾지를 못하고 돌아서서 내려오는데 라벤더 언덕에 아스타국화 군락지를 지나서 제2구간 퍼플교(박지~반월) 915m를 걷기를 독촉하여 가고 있는데 퍼플교 중간지점에서 바다를 살펴보는 낭만도 즐기면서 반대쪽에서 걸어오는 관광객에게 정다운 인사로 즐거움을 가졌다.

반월도에 도착하여 보니 라일락, 수국, 보라루드베키아, 자목련 등 이름모를 자주색 열매식 꽃이 만발하여 자주색 섬을 장식하였다. 더욱 감회가 새로워진 느낌을 받으면서도 약속된 시간에 주차장에 도착하기 위하여 제3구간 문 브릿지(반월도~단도) 380m를 질주하였다. 3구간 합계 1,842m를 걷고 마지막 제방뚝까지 합하면 2Km 이상을 구경하면서 걸었다. 그러면서 안내판을 살펴보니 박지도 둘레길이 2.1Km로 90분 소요가 되고 반월도 둘레길은 4km로 120분 소요된 작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관광명소임은 틀림이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약속된 퍼플록 주차장에 숨가쁘게 도착하여보니 5분 정도 약속 시간보다 빠르지만 필자를 실었던 관광버스는 이미 출발을 하였다. 다행히 운전기사 핸드폰을 알고 있어서 연락하여 차를 돌아오게하여 승차를 하였다. 그런데, 45명중 필자를 제외한 44명이 퍼플교 1~3구간을 걷지 않았으므로 인하여 약속된 주차장에 빠르게 도착하므로 인하여 이런 일이 발생 했으나 필자가 인내하고 참았다. 그리고 관광버스는 다음 도착지인 자은도에 있는 대형호텔 씨원아일랜드(지하1층 지상8층)를 지오그룹이 open(개점) 행사장에 도착하여 참석을 하였다.

호텔의 건축 내용을 살펴보니 건축 부지 및 건축비로 무려 870억여 원을 들여 건축을 하였다고 참석자 중에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전하여 감탄을 하였다. 우리 일행은 차에서 내려 호텔 광장으로 갔더니 오늘 호텔 개점식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호텔광장을 가득 메워서 가수 박상철, 남진과 7~8명의 가수가 와서 열창을 하여 화려한 호텔 개업을 축하하여 주었는데 이런 섬시골에 광주에 있는 호텔보다 훨씬 큰 호텔을 막대한 자본을 투자하여 경영한다는 것은 앞으로 신안 섬에서 관광자원의 활성화로 수입을 창출하는데 호텔 경영진의 큰 안목을 감탄 하면서 오후 5시까지 행사에 참석하여 마치고 승차하여 돌아오면서 보람있는 관광이 되었다고 느끼면서 앞으로 한 번 더 가보고 싶은 관광지였다고 판단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차내에서는 노래의 리듬에 맞춰 즐거움을 만끽하고 하루 관광에 지친 피로를 말끔히 해소 시켰다.



# 왕비천(王妃泉)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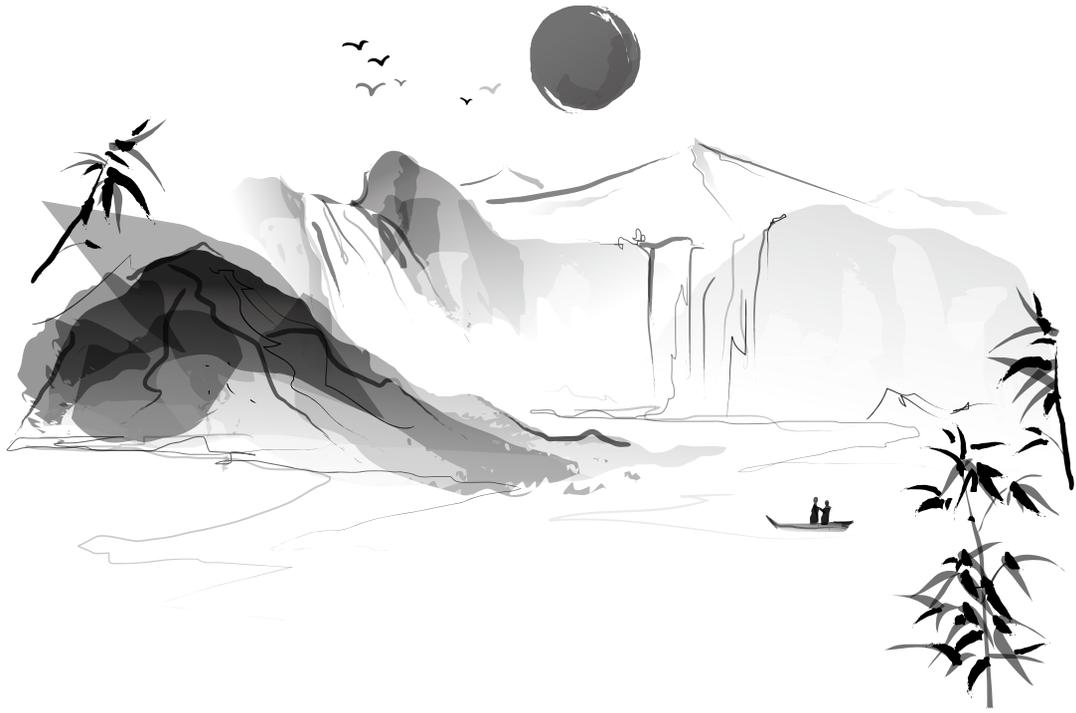


위 무 량 (북구문화원 회원)

우리 지방의 나주(羅州)에 완사천(浣沙泉)이 있으면, 장흥(長興)에는 왕비천(王妃泉)이 있다. 완사천과 왕비천은 다 같이 왕비(王妃)에 관한 우물이다.

완사천은, “고려(高麗) 태조(太祖) 왕건(王建)”의 제이비(第二妃)로, 고려 제2대왕 혜종(惠宗)의 모후(母后)인, “장화왕후 오씨(莊和王后吳氏)”의 아름다운 사랑의 전설(傳說)이 담긴 “우물 [泉]”이다. 이 우물은 나주시 송월동 (나주시청 앞)에 있으며, 전라남도 기념물 제93호이다. 하지만 왕비천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음과 동시에, 완사천과는 너무도 대조적으로 방치되어 있다.

왕비천(王妃泉)은 호남(湖南)의 오대명산(五大名山)이자 우리나라 100대 명산인, 천관산(天冠山) 동맥(東脈) 끝자락 장천계곡(長川溪谷), 당동마을 112번지에(현, 위경량 생가) 자리하며, 당동(堂洞) 마을 사람들의 음용수(飲用水)로 사용해온 감로천(甘露泉) 이었다. 이 마을은 원래 중국(中國) 절강성(浙江省) 소흥부(紹興府)에서 온, 임호(任灝)가 1035년 경 고려(高麗) 제10대 정종(靖宗= 1018년~1045년) 때 개기(開基)한, 장흥임씨(長興任氏)의 본관(本貫) 마을이다.



원래 왕비천은 임호의 손자 임원후(任元厚)의 딸이, 1126년 고려(高麗) 제17대 인종(仁宗) 때에 연덕궁주(延德宮主)로 추천되어, 입궁(入宮)하기 이전까지 이 우물을 마셨다고 전한다. 그리고 그녀가 연덕궁주가 된 이듬해인 1127년에 의종(毅宗)을 낳고, 1129년에 왕비로 책봉되고 난 이후부터 마을 사람들이 이 우물을 왕비천(王妃泉)이라 불렀다고 전해 오고 있다.

이 우물은 지하(地下) 깊은 곳에서 솟아난 물은 아니지만, 장천(長川) 계곡으로부터 암반(巖盤) 사이의 “석(石)비레”의 틈을 통과해 자연적인 여과(濾過)로, 정수(淨水)가 잘 된 매우 청정(淸淨)한 물이다. 과거 당동마을이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제72호인 장천재(長川齋)와 천관산을 오르내리는 관문(關門) 역할을 했을 때는 유산객(遊山客)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생명수(生命水)의 역할을 했었다.

원래 계곡을 흐르는 물이 원천적(源泉的)으로 청정한지라, 마을 사람들은 각 가정에 별도로 우물을 파서 사용할 필요가 없이, 마을 개기(開基) 당시부터 이 계곡의 물을 음용수(飲用水)로 이용 해왔으며, 집성촌(集姓村)이 되면서부터 평소 음용 해오던 자리에, 집수통(集水桶)을 만들어 마을 공동(共同) 음용수로 이용 해왔었다.

특히나 당동마을은 지반(地盤)이 모두 암반(巖盤)이라 예전에는 가정에서 우물을 파고 싶어도 팔 수 없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 조선조(朝鮮朝) 말기(末期)에 마을 한복판에 제주판관(濟州判官) 백씨(白氏)가 살게 되면서, 온갖 장비와 우물을 파는 방법을 동원하여, 우물을 파서

도르래를 이용하여 음용수로 사용했으나, 마을 사람들만은 여전히 왕비천의 물을 음용수로 사용해 왔었다.

천관산의 숲이 울창(鬱蒼)했던 때에, 장천 계곡을 흐르는 물이, 숲속으로 흘러 내려오기 때문, 오염이 되지 않는 아주 청정(淸淨)한 물인지라, 그대로 음용해도 좋은 감로수였으나, 여원연합(麗元聯合)으로 일본(日本)을 정벌(征伐)하고자, 전함(戰艦)을 건조(建造)하기 위해 울창했던 송림(松林)이 남벌(濫伐)당한 피해로, 알게 모르게 장천 계곡의 물도 청정도(淸淨度)가 떨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다 숲이 원상회복(原狀回復)이 되기도 전에,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에 군수물자(軍需物資) 충당을 위해, 저지른 만행(蠻行)과 8. 15해방을 맞이하자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되어, 도벌(盜伐)과 남벌(濫伐)의 자행(自行)으로 2차 피해(被害)를 받아, 극심한 토사(土砂) 유출(流出)로 정화력이 더욱 심하게 떨어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피해를 받고 천관산이 별거승이가 되어 숲이 회복되기 전에 6.25 전란(戰亂) 속에 '공비(共匪)'들의 방화로 3차의 피해를 받아, 풀 한 포기도 보기 힘들게 초토화(焦土化)가 돼버려, 이중 삼중으로 천관산 숲이 피해당하여 숲으로부터 많은 정수기능(淨水機能)을 잃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3차 피해를 받기 이전만 하더라도, 왕비천에서 장천재까지 계곡 주변에는 동백나무, 생달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의 난대수림(暖帶樹林)인 상록수(常綠樹)와 낙엽수(落葉樹)인, 밤나무 상수리나무 등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계곡을 흐르는 물이 자연정화되어 그렇게 오염된 것을 느낄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는 계곡의 중간에 보(淤)를 만들어, 항상 흐를 수 있는 물의 흐름이 차단되어 계곡을 흐르는 물의 양도 적어진 데다가, 계곡의 물을 이용하는 출입자들이 많아져 그나마 조금씩 흐르는 물마저도 오염이 되, 왕비천의 물마저 오염되지 않았을까? 하는 기우심(杞憂心)에서 마을 사람들은, 왕비천의 물을 멀리하기 시작해왔다.

그런 가운데 세상살이가 편리해지고 우물 파는 기술이 좋아지자, 현재는 각 가정 나름대로 우물을 파서 정수시설을 갖추고 각자의 우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당동마을이 장천재와 천관산을 오르는, 관문 역할이 자연적으로 기능을 잃게 되자, 마을을 개기한지 천년의 세월에 이르도록 생명수 역할을 해온, 사적(史的) 가치가 깃든 왕비천인 감로천을 방치(放)하고 있음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 환경호르몬



송천 배 병 수  
(松泉 裴 炳 洙)

우리가 사람답게 사는 환경의 조성은 과학의 힘이 크다. 과학은 의(衣). 식(食). 주(住)에 관계되는 산업은 물론이고 사람이 풍족한 사회에서 흥미롭게 살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도 과학의 발달과 연관이 깊다.

과학은 여러 분야에서 지금도 쉼 없이 발전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우리가 입고 있는 의류를 살펴보면 반세기 전에는 면(綿). 마(麻). 모(毛). 견(絹)과 같은 천연섬유가 주종을 이루었다. 차츰 화학섬유가 등장함에 따라 천연섬유의 사용은 점차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형편이다. 공산품은 농산물처럼 일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짧은 시간에 대량 생산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일 것이다.

자본주의에서는 언제나 수요가 있으면 공급은 곧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필요한 섬유를 빠르게 생산할 수 있어서 화학섬유의 공급은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다.

합성섬유와 합성수지 그리고 합성고무는 현대 산업에서 꼭 필요한 주요 원 자재들이다. 이들의 주원료는 원유의 정제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나프타에서 제조되는 유기합성 제품들이다. 원유의 부산물로 생산되는 것이 많은 유기 합성물을 보면 원유의 이용 가치는 무한하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활용하는 플라스틱은 합성수지이다. 플라스틱은 몇 번이고 열만 가하면 변형할 수 있는 열가소성 수지와 경화된 후에는 용해되지 않는 열경화성 수지로 분류한다. 플라스틱 제품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경제적이며 비중이 작고 내식성이 강하여 여러 곳에서 소비재로 많이 쓰이고 있다

합성섬유가 출하되기 전에는 우리가 입는 의류의 재질이 대부분 천연섬유에 의존하였다. 목화에서 솜을 분리하여 실을 얻고 직기에서 여러 공정을 거친 후에 광목을 얻는다. 광목은 불순물을 없애는 정련 공정과 원섬유에서 나타난 색을 없애는 표백 공정을 거쳐 염색하면 옷감으로써 이용가치가 많다. 모직물은 동물의 털에서 가볍고 보온성이 좋은 섬유를 얻는다. 견직물은 누에고치에서 가늘고 길며 부드럽고 유연하며 광택이 좋은 양질의 섬유를 얻는다. 마(麻) 직물은 삼 줄기에서 줄기섬유를 얻기 위해 찌통에서 찌 후에 줄기섬유를 얻고 여러 공정을 거쳐 옷감으로 이용한다. 이처럼 원료로부터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노동력이 많이 소요되는 천연섬유는 소비자들로부터 점차 외면당하는 실정에 이르렀다.

최초로 1909년 레오 베이클랜드가 포름알데히드와 페놀로 만든 베이클랜드라는 플라스틱을 제조하였다. 분자물리학의 지식에 대한 진보는 나일론, 폴리에틸렌과 다른 플라스틱의 개발을 촉진시켰다.

시간이 지날수록 합성섬유의 소비는 의류뿐 아니라 산업용에서도 소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업용에서는 방탄복이나 방화복에서도 합성섬유가 쓰이며 자동차의 타이어에도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값이 저렴하고 쉽게 얻을 수 있으며 취급하기가 쉬운 합성섬유는 고기를 잡는 어구에서도 폭넓게 이용하고 있다.

질이 좋고, 값이 싸며 취급하기 쉬운 합성섬유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많이 이용한다. 플라스틱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제조할 수 있으며 비중이 작고 내식성이 강하기 때문에 금속이나 나무, 그리고 유리 대신 여러 용도에서 사용되고 있다. 편리한 생활을 위하여 만들어진 합성수지와 합성섬유가 점차 사용이 늘어나면서 이제는 환경호르몬에 노출되는 사회에 살아가는 실정이다.

환경호르몬은 일상생활에서 배출된 후에 사람의 체내로 들어와 여러 호르몬의 생리작용을 교란하는 화학물질이라 하니 이제는 걱정이 앞선다. 환경호르몬은 오존층 파괴,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세계 3대 환경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환경호르몬은 내분비 교란 물질을 말한다. 환경호르몬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생식기관의 암 발생과 신체의 발달을 저해한다고 한다. 그리고 체중 증가와 당뇨병과 대사증후군의 발병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갑상선 기능 이상과 심혈관질환 증가에도 영향이 있다고 하니 환경호르몬 문제는 갈수록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어쩌다 태풍이 지난 후에는 높은 파도에 밀려 그동안 바닷속에 묻혀있던 쓰레기들이 해안지방으로 떠밀려오는 것을 보아왔다. 연안의 바위틈과 모래에는 합성수지와 합성섬유 등이 널브러져 있는 것을 청소하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골머리 아플 일이다. 청소해도 일은 끝나지

않는다.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을 소각하거나 매립 방법으로 처리한다. 소각하면 매연이나 분진이 발생할 것이고 매립하면 장소 선정도 어려운 일이며 쓰레기들이 분해하여 없어지는데 500여 년이 소요된다니 두고두고 우리 후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우리에게 편리했던 합성수지와 합성섬유가 환경오염원이 되어서 사람에게만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사람도 합성수지의 작은 입자들이 몸속으로 흡입될 수 있으며 바다에 사는 어족들도 바다에 떠 있는 환경 쓰레기들을 먹이로 착각하여 먹다가 죽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니 안타까울 일이다.

사람이 생활하다 보면 어느 재료이던지 모두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편리함을 추구하다 보면 나중엔 단점도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처럼 합성수지 같은 원자재들을 쉽게 구할 수 있다면 소비자들은 고쳐 쓰고, 아껴 쓰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자원은 계속 낭비할 것이고 그러면 환경호르몬은 더욱 심각할 것이다. 언제쯤 환경호르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쓰레기 배출을 줄일 것인지 답답하기만 하다.



송천 배 병 수 (松泉 裴 炳 洙)

(2006년)《수필시대》. (2007년)《수필문학》등단.

(2009년)《소년문학》(동화).

세계문학상 공모(2021년) 본상. 단테 탄신 기념 문학상 대상. 제7회 한국문협 작가상

광주·전남아동문학인상. 제12회 산림문화작품공모전 동상

(사)영호남수필문학협회 창립 이사장상(2019년) 수상

한국문인협회 회원. (전)한국아동문학회 이사. 한국수필가연대 제13대 부회장

(사)영호남수필문학협회 부 이사장

저서 (수필집): 《멈춤 그리고 시작》,《순환의 여정》,《갈대의 춤》

(동화집): 《청설모가 왕인 나라》

# 풍 영 정

오 충 자 (북구문화원 회원)

풍영정은 광주의 관문이며 옛 선비들의 쉼터였다. 남도의 젓줄 영산강이 발아래 있으며 극락이라 부르는 구간이다.

영산강 8경중 제7경이라 부르는 이곳 풍영정은 1560년 승문원 판교를 마지막으로 벼슬에서 물러난 김언거(1503~1584년)가 귀향하여 지은 정자다. 바른 성품과 높은 덕망으로 그를 따르는 이들이 많았는데 그가 낙향하자 정자를 지어 존경의 마음을 표했다 한다.

지금은 풍영정 하나만 남아 있지만 풍영정 주변에는 12채나 되는 정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의 낙향을 반기고, 그와 함께 시를 짓고 풍류를 즐기려는 이들이 많았다. 11채의 정자들은 임진왜란을 거치며 모두 불에 타 없어졌다.

전쟁과 세월의 풍파를 이기고 풍영정이 서 있는 곳은 광산구 신창동이다. 광산 김씨 문중의 소유이며 정면 4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으로 건축된 호남의 대표 정자다.

그런데 어찌하여 풍영정은 보존되었을까? 여기에는 풍영정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있다. 불길에 휩싸이던 풍영정의 현판 글자 중 ‘풍’ 자가 오리로 변하여 극락강 위로 날아올랐다. 이를 본 왜장이 이상히 여겨 불을 끄도록 지시했다. 그러자 오리가 다시 현판의 ‘풍’자로 날아와 앉았다. 현판의 글씨를 자세히 보면 이야기의 신빙성을 뒷받침 해 주듯 ‘풍’ 자가 다른 서체와 살짝 다르다.

풍영정에는 또 하나의 전설이 있다. 옛 풍영정 앞 극락강에는 강원도에서 소금 배를 타고 소금을 팔러오는 소금장수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소금장수 총각은 마을에 사는 장씨집 처녀와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양반집 규수와 소금장수 총각은 신분이 달라 사랑을 이루기에는 현실적 격차가 너무 커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택했다. 그 사이 처녀는 다른 이의 아내가 되었다.

얼마 뒤 처녀를 잊지 못해 마을을 다시 찾아온 소금장수 총각은 처녀의 결혼 사실을 알고 쓸쓸히 되돌아가야만 했다. 시집을 간 처녀도 소금장수 총각을 잊지 못해 밤마다 풍영정에 올라 눈물을 떨구다가 죽고 말았다. 처녀가 죽은 자리에는 강원도를 향해 한 그루 나무가 자라나 온 강을 뒤덮었다.

향직한 이 강가의 정자에는 당대 최고의 시인들이 드나들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해서 김인후, 퇴계 이황, 고봉 기대승이다. 정자에 걸린 현판에는 그 흔적들이 남아있다. 당대 명필이던 한석봉도 풍영정에 글씨를 남겼다. 제일호산(第一湖山)이라 쓰인 편액이 바로 한석봉의 명필이다. 풍영은 논어에 나오는 말이다. '자연을 즐기며 시가를 읊조린다'는 뜻이다. 그래서 일까 해서 김인후, 신제 주세붕, 미암 유희춘, 한음 이덕형, 면앙정 송순, 제봉 고경명, 등 당대의 최고의 선비들 시문 50여수가 풍영정 정자에 걸려있다.

풍영정에는 조선 최고의 철학 스캔들이라 명명된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의 아름다운 교류의 흔적도 이곳에 남아 있다.

'속세가 소란하여 쉴 수가 없었더니 가슴속에 많은 걱정이 차곡차곡 쌓였어라' 라고 한 퇴계의 시는 바로 풍영정에서 쓴 것이다.

'산을 좋아하는 나그네가 쉴 새 없이 노닐면서 우연히 선창에 이르니 모든 근심이 사라졌다' 고 응수한 고봉의 시 역시 풍영정에서 쓴 것이다.

58세의 성균관 대사성 퇴계 이황과 32세의 과거에 갓 급제한 고봉이 나이차를 뛰어넘어 사단칠정에 관해 8년간이나 논쟁의 배경이 되었던 곳이 이곳인 셈이다.



# 제28회 무드리 그리기·글쓰기 공모전

## | 입상자작품 |

### 그리기 부문

수상내역	이름	학교	학년반	훈격
대상	이다윤	한울초	6-4	광주시교육감
최우수상	선소희	광주문화초	5-3	광주문화원연합회장
"	박세연	연제초	4-2	"
"	제갈서준	본촌초	1-1	"
우수상	정재민	한울초	6-4	북구문화원장상
"	김은우	새별초	4학년	"
"	최지원	유진아트미술교습소	9세	"
"	서채원	신세계유치원 (영의정-1반)	7세	"
"	김민건	아이콩미술학원	7세	"
장려상	이규현	리틀스케치미술학원	13세	"
"	심희재	본촌초	6-9	"
"	정라임	새별초	5학년	"
"	박도윤	본촌초	1-5	"
"	김주하	현아트미술학원	6세	"
가작	이소현	리틀스케치미술학원	11세	"
"	정예준	유진아트미술교습소	10세	"
"	홍준석	지산초	3-2	"
"	박사랑	대반초	3학년	"
"	이다연	본촌초	1-9	"

### 글쓰기 부문

수상내역	이름	학교	학년반	훈격
대상	신서연	광주동신여중	3-3	광주시교육감상
최우수상	전하윤	광주동신여중	1-1	광주문화원연합회장상
"	박하윤	무등초	5-3	"
우수상	정세경	문우초	6-1	북구문화원장상
"	김수현	하백초	4-4	"
"	허예지	하백초	2-6	"
장려상	장혜윤	양산초	5-2	"
"	박지혁	신창초	5-6	"
"	조현진	신창초	5-9	"
"	조은	양산초	4-1	"
"	이서울	유촌초	3-1	"
가작	민선애	문우초	5-2	"
"	류초아	양산초	4-3	"
"	박태민	유촌초	3-3	"
"	배민	화개초	3-6	"
"	김건민	신창초	3-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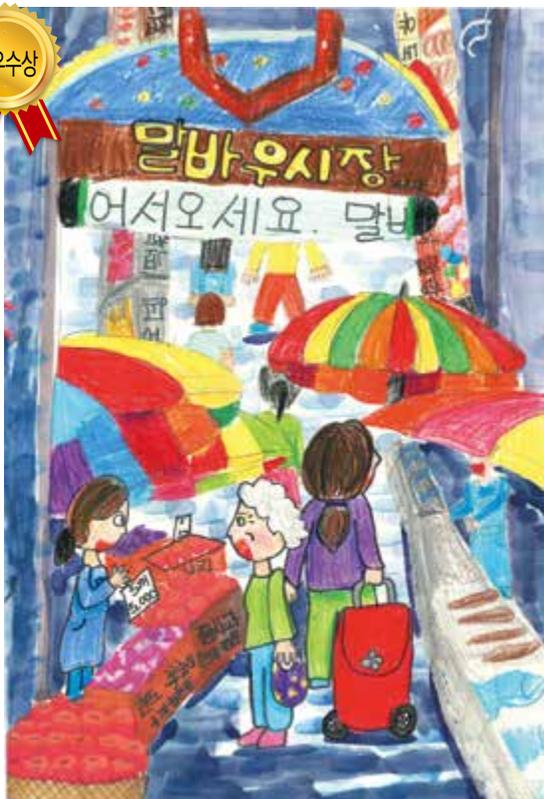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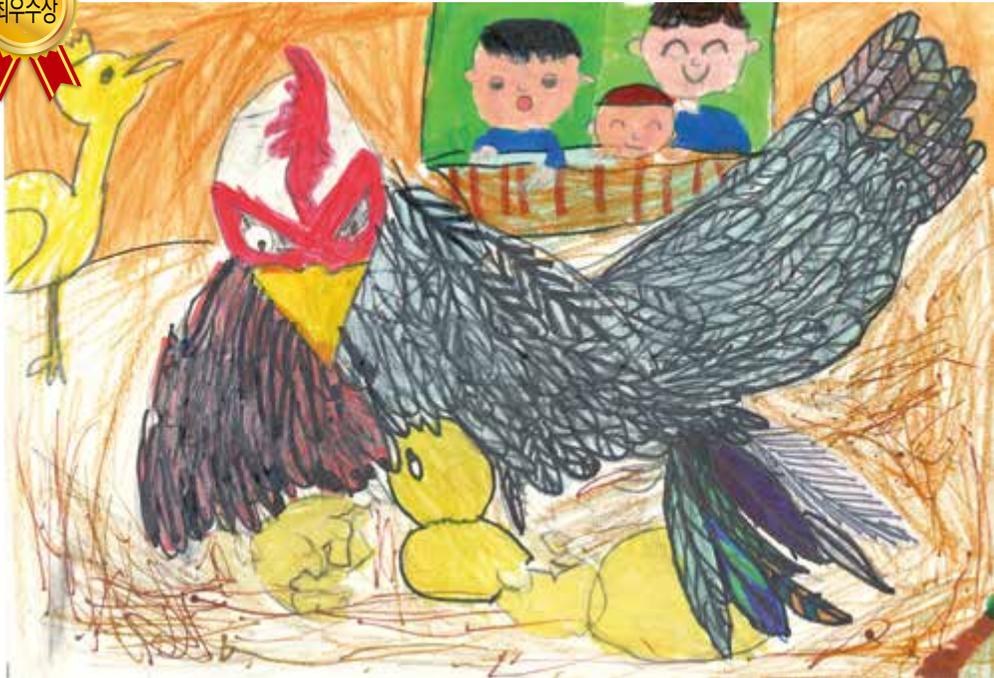
대상 이 다 윤 (한울초 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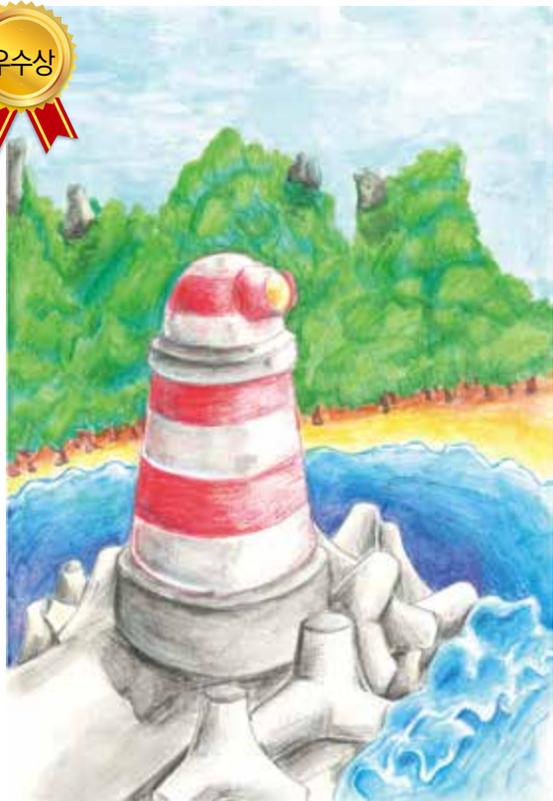
최우수상 선 소 희 (광주문화초 5-3)



최우수상 박 세 연 (연제초 4-2)



최우수상 제갈서준 (본촌초 1-1)



우수상 정재민 (한울초 6-4)



우수상 김은우 (새별초 4학년)



우수상 최지원 (유진아트미술교습소 9세)



우수상 서 채 원 (신세계유치원 (영의정-1반) 7세)



우수상 김 민 건 (아이쿱미술학원 7세)

장려상



장려상 이 규 현 (리틀스케치미술학원 13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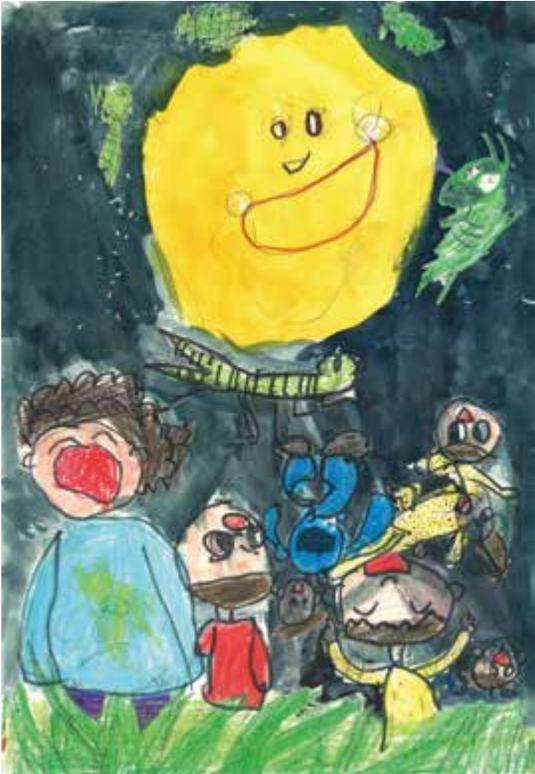


장려상 심 희 재 (본춘초 6-9)

장려상



장려상 정 라 임 (새별초 5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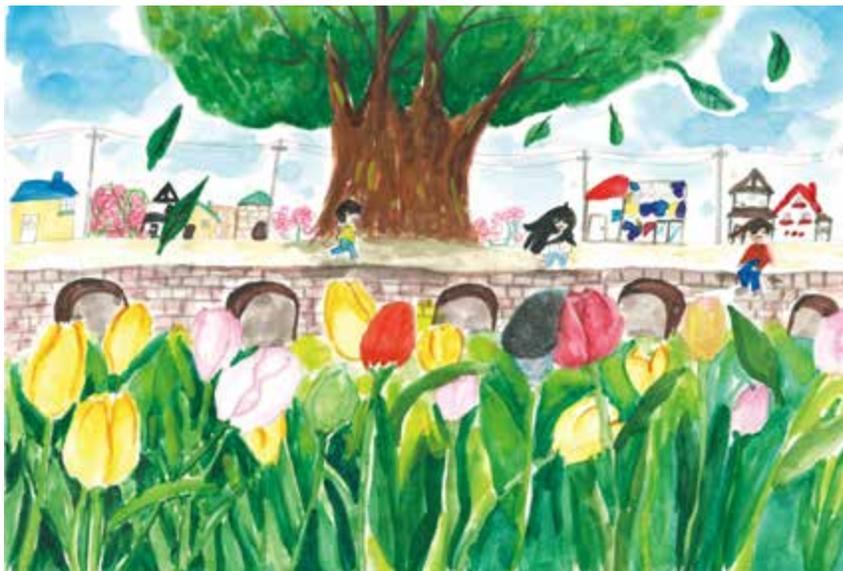


장려상 박 도 윤 (본촌초 1-5)



장려상 김 주 하 (현아트미술학원 6세)

## ■ 가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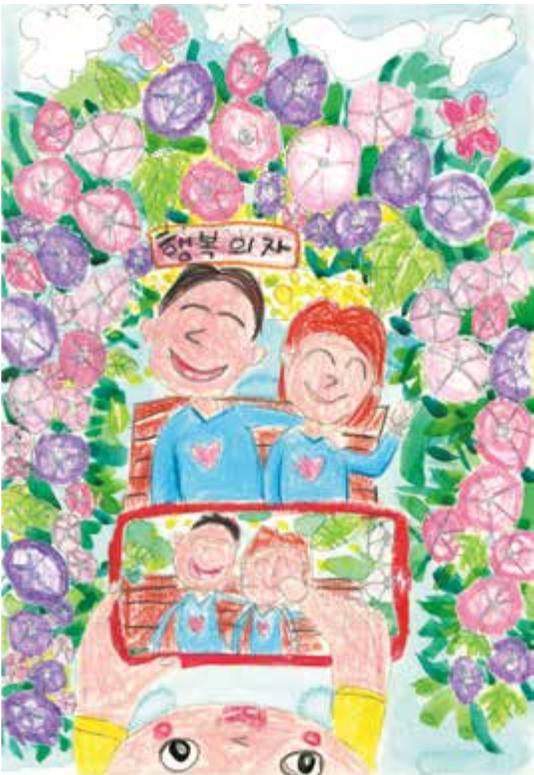


가작 이 소 현 (리틀스케치미술학원 11세)

■ 가작



가작 정 예 준 (유진아트미술교습소 10세)



가작 홍 준 석 (지산초 3-2)

■ 가작



가작 박사랑 (대반초 3학년)



가작 이다연 (본촌초 1-9)



대상

# 토끼가 사는 집

신 서연 (광주동신여자중학교 3-3)

제가 사는 동네로 놀러오세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개 지방의 아무개 동네라 비웃을 지도 모르지만,  
찾아오시는 길목이 비록 나이 든 노인의  
몽툭한 뒤통치 같을 진 모르지만,  
누군가의 눈엔 이 빠진 호랑이만큼  
초라한 정경일지도 모르지만,  
올라오는 길이 바닷가 등 굽은 어부 인생의 곡선만큼 가파른 바람에  
“뭘 이런 달동네가 다 있어?”  
라고 욕 하실 지도 모르지만...  
맞는 말이에요. 굽이굽이 열차의 선로보다 더 길게 늘어선 집집들을 오르려면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하죠

하지만 자세히 보세요!

손바닥만 한 집들 사이의 간격에 소담히 자란

사람 채취 가득한 상추며 푸성귀가,

넓은 담벼락 너머로 불쭉 고개 내밀며 방긋이 미소 지은

초여름의 살구나무 살구꽃이,

그 살구꽃 조막만한 머리 위에 걸린

제 몸을 노을로 물들인 구름이.

길을 오르는 사이에 슬며시 당신의 마음에 산들바람 타고 들어와요

어둠이 세상을 덮고 나면 마당으로 나오세요,

달이 천천히 다가와요 그거 아세요?

우리 동네는 달과 가장 가까운 동네라는 걸,

혹시 모르죠?

어쩌면 우린 달에서 꺾충 뛰어내린 토끼들 일지?

다시금 달로 올라가 버리기 전에

어서 우리들의 달동네로 놀러 오세요!



# 우리 둘

전 하 윤 (광주동신여자중학교 1-1)

살면서 서로의 얼굴도 몰랐지만  
널 만나는 특별한 일로 나의 얼굴엔  
해바라기가 떴어

너와 싸운 날엔 네가 미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너와 어떻게 화해할지 생각해  
이런 날에는 나도 내 기분을 몰라  
일곱 빛깔 무지개를 그리지

너가 이사 갔던 날엔 나에게 먹구름이 밀려 왔어  
그래도 항상 연락해 주는 네가 좋아

사랑하는 내 친구야!  
우린 하나의 돌덩이 하나의 깃털이 되자꾸나!



## 같이 다니는 친구

박 하 윤 (무등초등학교 5-3)

나에게는 학교를 갈 때 같이 가는 친구가 있다. 작년까지는 학교를 잘 가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했으니 학교 갈 때 친구가 없었다. 학교 수업에서도 줌으로 해야 해서 친구들 얼굴을 잠시밖에 보지 못하고 화면에 나오지 않는 친구는 얼굴을 보지 못하기도 했다.

작년에는 같은 반 친구가 되었지만 얼굴도 익숙하지 않았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 얼굴의 모양이 생각한 것과 달라서 놀라기도 했다.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생각했던 얼굴이 아니라서 놀랐다.

올해는 학교로 가서 수업을 시작해서 새롭게 사귀는 친구들도 있고 3학년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었다. 학교를 가는 길에는 같은 아파트에 살거나 학교 가는 길이 같은 친구들을 자주 보고 하교할 때도 자주 보니 친해진 친구가 있다. 친구와 학교를 가면서 오면서 친해져서 학교 숙제를 할 때나 조별 과제를 할 때 친구와 마음이 맞아서 준비를 하기도 했다. 장기자랑 연습을 할 때도 밖에서 만나서 놀이터에서나 정자에서 준비를 하기도 했다.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 너무나 좋다. 난 컴퓨터로 공부하고 영상만 보는 것은 싫다. 솔직히 집중도 안되고 공부에 능률도 안오른다. 선생님과 이야기도 나누고 발표도 하고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것이 좋다. 학교에서 친한 친구와 공부한 것을 이야기를 나누며 집에 오고 갈 때도 시간에 맞춰서 기다리며 친구를 생각한다. 아직은 마스크를 쓰고 만나야 하지만 그래도 코로나가 조금씩 우리 곁에서 떠나고 있으니 친구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운동도 하고 신나게 함께 놀 수 있길 기대해 본다.

식구라는 의미를 되새겨 본다. 같은 공간에서 자고 밥을 먹는 사람. 큰 의미에서 함께 있는 시간도 많고 학교에서 밥도 같이 먹고 그만큼 친해질 수 있는 것이 식구겠지. 나에게도 식구 같은 친구가 있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것이 많은 친구가 있다. 친구가 있어서 공부도 즐겁고 노래도 신나게 부를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다. 같이 다니는 친구가 있으니 나와 동행하는 친구가 있으니 너무 행복하다. 그런 친구가 어느날 학교 같이 가려고 기다렸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서 기다리다 화가 나서 결국 혼자 학교에 갔다. 학교에 다녀와서 연락을 해 보니 친구가 코로나에 걸려서 병원을 가서 연락을 못했다고 하는 것이다. 처음에는 기다린 것에 화를 냈지만 친구가 아팠을 것을 생각하니 그런 마음이 미안해졌다. 친구가 빨리 낫길 기도한다고 말해주었다. 친구의 상황을 모르고 화를 냈으니 미안했다. 친구와 기쁜일도 힘든 일도 같이 해서 더 기뻐하고 나눠서 힘든 일은 줄이고 싶다.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너무 좋다.

헤어졌던 그런 친구라면 슬프고 늘 옆에 있으면 행복한 것이 친구이다. 함께이기에 어려운 일을 이겨 나가고 도와주었던 친구이기에 지금에 나는 여기에 와 있고 삶의 한 모습이라 볼 수 있는 친구도 있지만, 싫은 친구라도 그들을 존중해야 한다. 친구니까 평소에 싫어하는 친구라도 언젠가는 필요할 때가 있고 내가 도와줄 때가 있는 것처럼 친구는 이 세상에 존재 하는 이유이다.

친구와 싸웠다면 사과하고 친하게 지내는게 친구. 가끔씩 싸워도 시간이 지나서 보면 옆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가 이 세상엔 많을 것이다. 그래도 마음에 위로가 곧 친구이고 없어졌다간 지구가 멸망할 수도 있는 존재 그것이 친구인 것 같다.



우수상

# 내 친구

정 세 경 (광주문우초등학교 6-1)

넓고 넓은 푸른 하늘처럼  
내 이야기를 잘 들어 주는 친구

활짝 핀  
해바라기처럼  
항상 웃고 있는 친구  
아니요 난 아니에요

알록 달록한  
물감처럼  
항상 새로운 친구

저는요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  
항상 웃고 있는 친구  
항상 새로운 친구  
날 언제나 믿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



우수상

# 자랑스러운 우리 동네

김수현 (광주하백초등학교 4-4)

나는 우리 동네를 참 좋아한다. 우리 동네에는 자랑거리가 많고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동네엔 자랑스러운 것이 정말 많지만, 그중에서도 큰 것이 있다. 바로 비엔날레이다. 비엔날레는 부산과 광주광역시 이렇게 전국에 둘 뿐인데, 그런 비엔날레가 우리 동네에 있다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랑거리다.

그리고 또 광주의 문화재도 있다. 그것은 김용학 가옥이다. 이 한옥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지었다고 한다. 안에 들어가 보면 한옥 산맥이 조화로워 풍경이 정말 좋다고 한다.

우리 동네엔 국보도 있다. 바로 중흥산성 쌍사자 석등이다. 이 석등은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졌다. 현재 우리 동네에 있는 국립광주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이렇게 문화 예술에 관련된 자랑거리가 있는가 하면 사람들의 관한 자랑거리도 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정말 마음씨가 바르다. 길고양이를 괴롭히지 않고 밥과 물을 챙겨주는 사람은 많고, 종종 겨울에는 고양이 쉼터를 만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신다. 그리고 우리동네 아이들은 인사를 참 잘한다. 나도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를 한다. 가끔 과자나 사탕을 주시는 분들도 있다. 물론 감사합니다 인사를 한다. 등교를 할 때에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시는 녹색 어머니회 분들이 계셔서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 이렇게나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 동네는 매일 행복하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사람들 덕분이다. 또 문화재들도. 비엔날레는 오늘도 그 자리에서 자리를 지키고 김용학가옥도 그 자리에서 멋진 한옥의 자태를 뽐낸다. 쌍사자 석등도 멋진 모습 그대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다들 정말 멋지다.

나는 이렇게 멋진 자랑거리가 많은 우리 동네가 정말 좋다.



우수상

# 보우는 내 친구

허예지 (광주하백초등학교 2-6)

내가 처음 2학년이 된 날  
우리 반에 친한 친구가 없었다.

그림도 잘 그리고  
글씨도 예쁘게 잘 쓰는  
보우

내가  
“보우야”  
하고 부르면  
“어?”  
라고 대답한다.  
내가 먼저 말을 걸어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다.

이제는 내가  
보우야. 하고 부르면  
마주보는 얼굴에  
눈과 입이 웃는다.



# 행복한 우리 동네

장혜윤 (광주양산초등학교 5-2)

놀이터에 애들이 있네  
뚜벅뚜벅 애들에게 다가가니  
활짝 웃고 있네

옆을 돌아보니  
사람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를  
경비실 아저씨가  
줍고 있네

스르륵 바람이 부네  
햇빛을 바라보니  
햇빛이 짹짹 열심히 빛을  
내고 있네

옆을 돌아볼 때마다 있는  
착한 사람들이  
씽긋 웃는 우리 동네



장려상

# 하늘색 내 친구

박지혁 (광주신창초등학교 5-6)

하늘색 내 친구는  
보양고 몽실몽실한  
구름을 가지고 있어  
나도 고개만 들면  
하늘색 내 친구를 볼 수 있지



# 꽃 같은 친구

조 현 진 (광주신창초등학교 5-9)

내 친구는 꽃이에요  
꽃처럼 예쁘고 마음도  
꽃처럼 예쁘지요.

언제나 꽃같이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면  
친절하게 대해 줘요.

친구를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요  
친구는 정말 꽃 인가 봐요



장려상

# 두 얼굴 내 친구

조 은 (광주양산초등학교 4-1)

내 친구는 두 얼굴이다.

때때론 아무것도 모르는 강아지 같지만

언제는 화난 고양이 같다.

종종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

머리의 불꽃이 타오를 때도 있어

그래서 화날 때, 기쁠 때 모두

사랑스럽고 좋은 친구

이런 친구가 좋다.



# 내 친구

이 서 울 (광주유촌초등학교 3-1)

내 친구 내 편을 들어주기도 하지만  
때론 따지기 대장이다.

한가지의 행동이지만  
두가지의 모습

절친인 것 같지만  
짜증나게도 한다.



# 행복한 우리 동네

민 선 애 (광주문우초등학교 5-2)

행복한 우리 동네의 이름은

문흥동

우리 동네에만 있는 특별한 곳

멋진 나의집

멋진 삼각산

멋진 하루도 특별해

친구와 함께 놀고

공부할 수 있는 곳도 있지



# 같은 마음

류 초 아 (광주양산초등학교 4-3)

너와 나는 연결 고리  
마음이 이어져 있대  
너와 나는 몸이 떨어져도  
마음만큼은 가까이 있대

너가 어디 있든  
우리는 한마음이래  
그런 나는 너가 참 좋아



# 7살 내 친구

박 태 민 (광주유촌초등학교 3-3)

나는 10살이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7살 내 동생이다.

언제나 날 반겨주고 제일 소중한 내 동생

함께 공부하고 함께 놀아준다.

동생이랑 놀 때가 제일 신난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내 동생.

서로 양보하고 사랑하고 믿어주는, 언제나 내 편인 제일 든든한 내 친구.

평생 행복하게 지금처럼 든든한 오빠, 편한 친구, 세상에서 가장

아껴주는 친구로 지내야지.

핑크공주 내 친구

내 동생 사랑해



# 행복한 우리 동네

배민 (광주화개초등학교 3-6)

아이들이 학교에서  
어우러져 있네  
나무들도 너무나도  
행복해서 맑은 공기를 주욱  
선생님도 호호호  
아이들은 히히히  
우리는 모두 모두 행복해요

우리 반도 활짝  
우리 모두 활짝  
나도 너도 활짝  
너무너무 행복해요

우리 동네 동네 모두 활짝  
우리 모두 활짝  
웃지!



# 꽃과 친구

김 건 민 (광주선창초등학교 3-7)

팔랑팔랑

노오란 나비야

어디 가니

꽃이 좋아

꽃향기 맡으러 간다네

팔랑팔랑

노오란 나비야

꽃과 친구가 되었구나

# 원 고 모 집

본원에서 발간하는 무등문화 제28호에 게재할 원고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주제와 형식은 자유로우며 채택된 글은 소정의 원고료나 상품이 지급됩니다.  
내 고장의 문화발전에 기여한다는 뜻으로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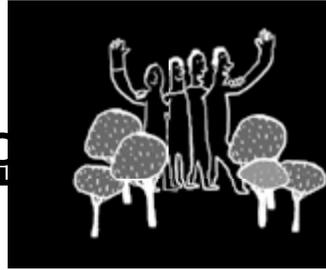
- 아 래 -

- 향토문화연구사례
- 문화유적·유물·민속·전설·민요·가사 등 발표되지 않은 자료
- 고서·고화 사진
- 문예작품(시·수필·소설·공트·평론 등)
- 기타
- 대상 - 출향 향우 및 광주시민 모두
- 원고매수 제한 없음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4층 (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or.kr> / E-mail. [moodri@hanmail.net](mailto:moodri@hanmail.net)

# 북구문화원 발전의 동반자가 되어주십시오



## 회원가입 및 특전



### 회원이 되시면

북구문화원에서 발행되는 모든 간행물을 우송해 드리고 본 원이 주최 및 주관하는 모든 행사에 초대되며, 본 원에서 공연, 전시, 진행되는 프로그램 및 강좌 수강시 50% 할인 혜택과 기타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성심 성의껏 도와 드리겠습니다.



### 가입방법은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적으셔서 우편으로 북구문화원 사무국으로 보내주시고 후 원금은 회원가입신청서에 명기된 성명으로 농협계좌 607-01-110747(예금주:광주북구문화원)로 입금해 주시면 됩니다.



1년간 후원회비는 20,000원이며, 전화 527-7701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낼곳 (우)61207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4층(중흥동, 북구평생학습관)

북구문화원 (무등문화 편집실) Tel. (062)527-7701 Fax. (062)527-7702

<http://gjbukgu.or.kr> / E-mail. [moodri@hanmail.net](mailto:moodri@hanmail.net)

## 향토자료를 수집합니다

본 문화원에서는 문화의 뿌리를 찾고 이를 보존·계승·발전시키고자 그 동안 각 문중이나 단체에서 소장해 왔던 광주시 북구지역의 과거 기록이 담긴 유물, 전래풍속 등을 수집, 보존하고자 합니다.

1. 자료수집 및 기록보존
2. 북구지역의 과거 선인들의 생활 상을 담은 기록(고서)
3. 북구지역의 전래풍습, 민요, 전설, 일화 등
4. 북구지역의 토박이로서 선조들의 기록이 담긴 족보
5. 고증이 되지 않은 각종 문서
6. 기타 북구의 역사



# 無等文化

제27호

---

2022년 12월 29일 인쇄  
2022년 12월 30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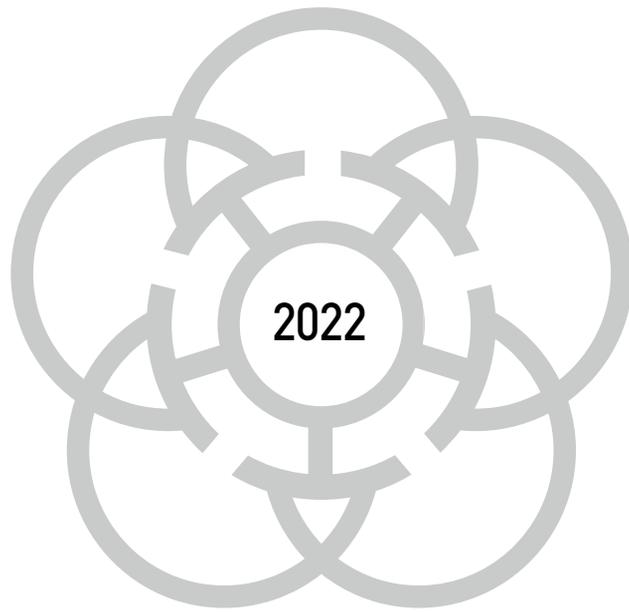
발행인 : 오 동 오  
편집인 : 김 정 희, 지 천 일, 김 희 영

발행처 : 광주광역시 북구문화원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전화. 062) 527-7701  
팩스. 062) 527-7702

인 쇄 : 한길인터라인 (T. 062-956-6812)

---

**비매품** 이 책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북구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발행인의 승낙없이 무단 복제 및 인용을 할 수 없습니다.



光州廣域市北區文化院

광주광역시 북구 향토문화로 65  
Tel. 062) 527-7701 Fax. 062) 527-7702  
<http://gjbukgu.or.kr>